

루이사 피카레타의 저술에 의거하여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풀어 쓴
하느님의 뜻 영성 입문서 (청소년용 속편)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 안의 집에 돌아온 한 방울의 물 이야기

지은이: 포드롭스

옮긴이: 박 요한 실비아



루이사 피카레타의 저술에 의거한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녹아든 한 방울의 물 이야기』 및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더 깊이 녹아든 한 방울의 물 이야기』의 속편

루이사 피카레타의 저술에 의거한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 안의 집에 돌아온 한 방울의 물 이야기

이 책은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녹아든 한 방울의 물 이야기』(Ⅰ ~ Ⅱ권)의 속편입니다. 하느님 뜻 선물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그 완성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따라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독자가 루이사 피카레타(1865~1947)의 저술에 담긴 진리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쓰였습니다.

그런 배경 (또는 예비) 지식이 없을 경우, 뒤쪽 참고란에 밝혀 둔 하느님 뜻 선물에 대한 여러 출처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출처에는 이미 출간된 『... 한 방울의 물 이야기』 Ⅰ ~ Ⅱ권도 포함됩니다.)

루이사가 쓴 『천상의 책』과 다른 책들에는 수많은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위의 책 Ⅰ ~ Ⅱ권에 그들 중 상당수를 특별히 택하여 실은 것은, 그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진리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 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책은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진리들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그대의 나날이, 사랑하올 아버지와 경탄하올 예수님과 눈부시게 빛나는 성령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성장시키며 이를 반영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느님과의 대화가 온종일 지속되는 것 - 이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그대의 행복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권의 『... 한 방울의 물 이야기』 시리즈는 www.dwdropbooks.com에서 무료로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책은 값을 치려야 하지만, 재료비와 출판 비용 및 우편 요금을 포함한 값일 뿐, 우리로서는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히고, 그렇게 한 것을 모두 모아 포장하고 배에 싣는 것 - 이 모든 작업은 하느님 뜻 선물을 전파하려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히 하느님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창조 업적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기다려 오셨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신학자가 아닙니다. 이 『... 한 방울의 물 이야기』 시리즈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깨닫고 체험한 것에 대한 우리의 목상이고, 아울러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성찰일 따름입니다.

그대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그대는 아마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 안의 집에 가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순례를 포함해서 하느님 뜻의 행위들에 충실하고 이 선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워 익힌 끝에, 드디어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집에 갈 것입니까?” 하고 묻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으니 말입니다.

마침내 **하느님 뜻 안의 집에 도착하면**, 오는 도중에 특이한 사건들을 많이 만난 긴 여정이었음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대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불현듯 깨닫는 시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왔구나!**”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현동(現動) 한복판 그 **신성의 동산**에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에덴동산**은 시작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아담**은 아직 집에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알긴 했지만, **하느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성 안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거룩하신 삼위 - 같은 뜻을 공유하시는 이 성삼위의 일치 및 하느님의 다른 신비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느님 자신의 활동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 관계성, 지복 직관, 신성의 동산, 하느님의 현동 속으로 ...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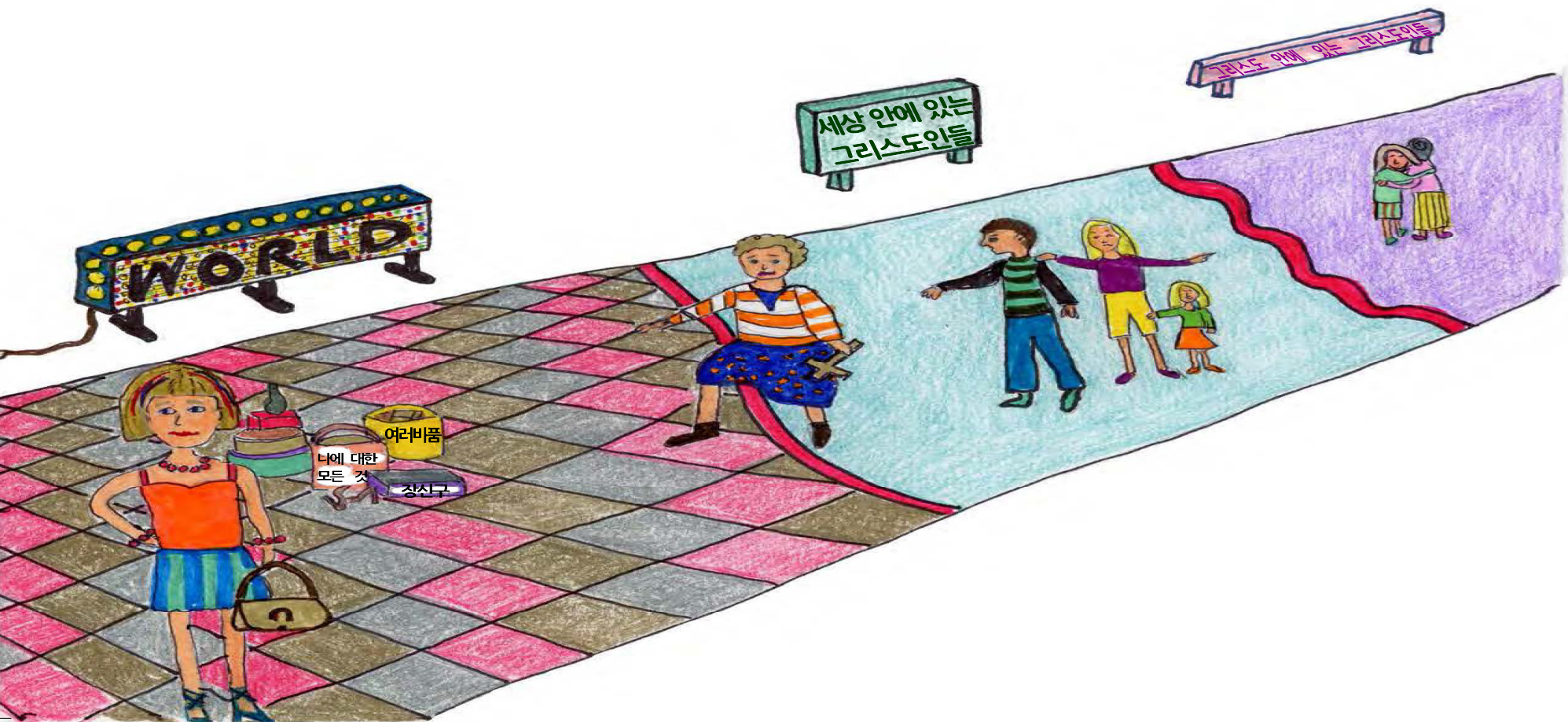
그대가 그 집에 가 있게 되면 그 사실을 자각할 것이고, 이를 확증하기 위해 그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치고 고무적인 관계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그대가 질서와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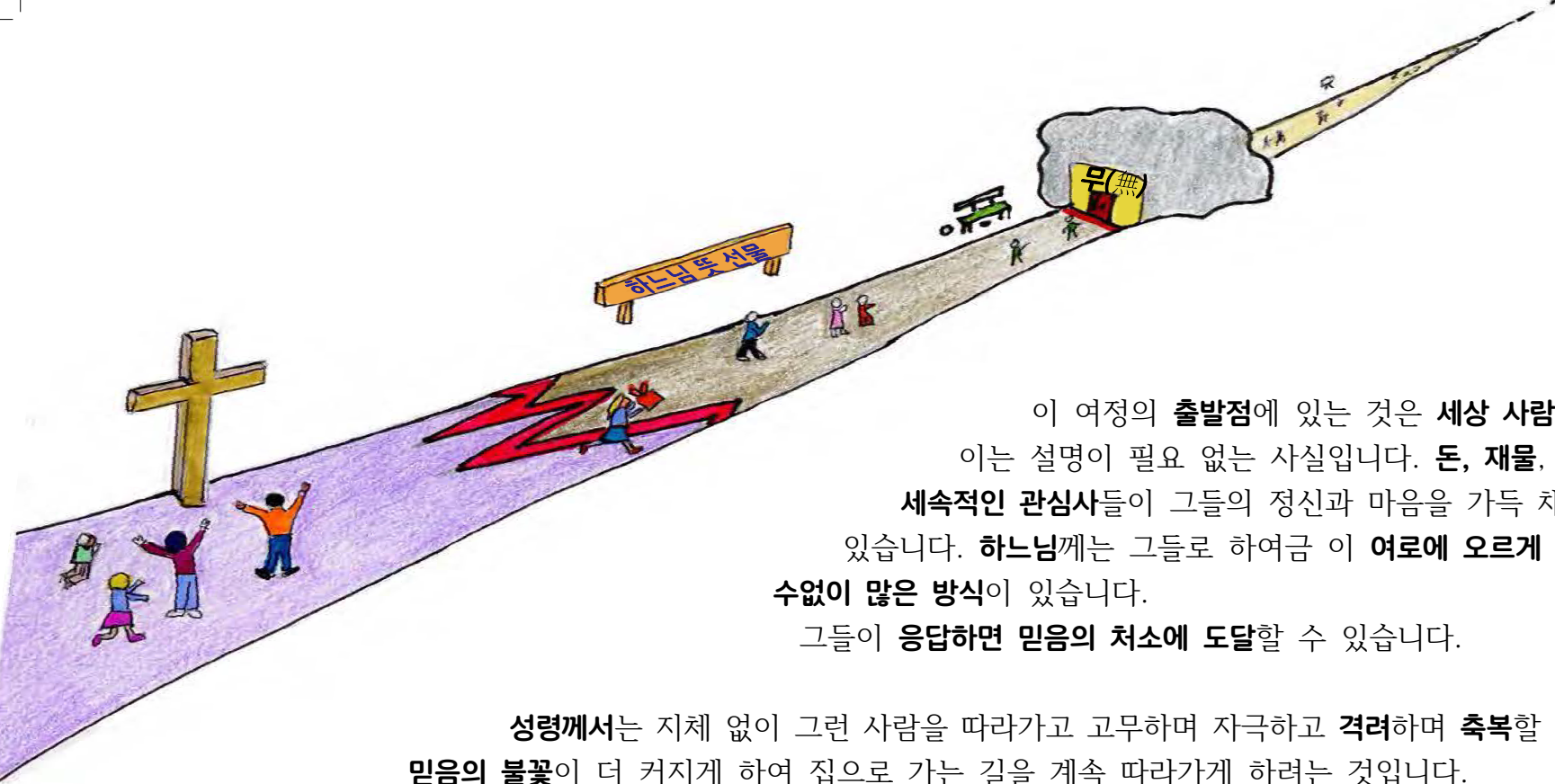


집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각각의 다리는 믿음과 지식과 노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대는 하느님께서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의 모상으로 만드신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대가 집으로 가는 이 여정의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자각한다면, 길에서 내려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다리는 매우 친숙하지만, 집 가까이로 다가감에 따라, 나중 다리들은 때때로 신비스럽기도 합니다.





이 여정의 **출발점**에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돈, 재물, 그리고**
세속적인 관심사들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그들로 하여금 이 **여로에 오르게** 하는
수없이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응답하면 믿음의 처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체 없이 그런 사람을 따라가고 고무하며 자극하고 **격려하며 축복**할 것입니다.
믿음의 불꽃이 더 커지게 하여 집으로 가는 길을 계속 따라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한쪽 발이 세상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계속 걸어갈 마음이 없어서 수백 가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느님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진노한 아버지로,**
 끊임없이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하는 아버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 **자기네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하느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 많은 생활방식**
 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이들도 있고, **돈에 대한 집착**에 빠져 지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저런 이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명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그들은 **하느님을 믿지만, 그 하느님은 본질에 있어서 그들 생명의 하느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그분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을 향해 있습니다. 비록 그 노력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 분투합니다.

게다가 성령께서는 그들을 은총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그들이 그 은총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간적인 경향이나 정욕과 싸울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그 뒤에 하느님의 뜻이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선물을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할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자거나 여자거나 간에 이 선물을 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순간이 얼마나 중대한 순간이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선물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일어난 하나하나의 일이 -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 다 의미심장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 길을 따라 매 순간 그 영혼을 더 멀리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느님 뜻의 행위와 순례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워 익히고 있으면, 하느님의 뜻이 그 영혼에게서 인간적인 것을 비우고 그 자리를 신적인 것으로 채웁니다. 하느님의 뜻 선물은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영혼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소유와 이 다스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 하느님의 뜻이 순간마다 인간의 뜻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들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상태로 현재 이 순간을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연옥을 겪는 은혜를 받습니다. 즉, 그 정화 과정을 미리 겪습니다. 이는 때때로 뒤로 물러설 만큼 언짢은 일이지만, 그렇더라도 끈기 있게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통을 대하는 법을 터득할 것입니다.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채 이 고통을 주신 그 거룩하신 뜻을 흠송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들의 인성을 예수님의 인성과 꼭 닮게 하려고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통에 대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도 **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은 루이사가 (산 제물로서 겪는) 그 자신의 일상적인 고통 상태에 놓이지 않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제의 개입이 필요한 그 특이한 ‘안수’ 때문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사랑이시여, 저를 그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제 뜻은 그 안에 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면 저는 기쁘겠지만, 저로서는 아무것도 넣고 싶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루이사는, “저는 이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하고 말한 셈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딸아, 나더러 **너의 뜻이 없는 고통**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말이나? 나는 그런 고통으로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할뿐더러, 그런 고통이 하느님의 정의나 나의 의노를 진정시키는 데에 소용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가진 것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이 뜻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뜻이 없는 고통**을 원한다면, 그런 것은 이 세상에 허다하게 있으므로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뜻의 작은 딸에게서는 그 **뜻의 자발성이 없는 고통**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다.”

그대가 하느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셨을 때의 복되신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다른 모든 군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이 원하시는 것을 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이 거룩하신 뜻이 원하시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그것은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간 뜻의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피앗**’이 **인간의 뜻을 하느님의 뜻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속 겪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차례 루이사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통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중 흥미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루이사가 **고통에 짓눌려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루이사에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에게도 격려가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하여라. **박해와 상처와 고통**이 끊임없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내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무슨 고통을 당하든지 그것으로 **내 상처를 다스리며 치유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 주는 매우 큰 영예가 되는 까닭은, 의사인 나 자신을 내어 주어 내 상처를 치유하게 하고, **나를 치유한 사랑의 공로**도 없어 주기 때문이다.”

많은 연옥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소리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이처럼 숭고한 가르침을 많이도 받고 있으니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치유하는 공로**를 얻게 된다는 것 — 이는 다른 **모든 공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광**은 하늘이 땅에서 아득히 높은 것처럼 **다른 이들의 영광과 구분**될 것입니다. 오, 우리가 이 가르침을 … 우리의 고통이 하느님을 치유하는 데에 소용될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지금 누리지 못하는 넉넉한 부를 얻었을 것입니다.”

‘피앗’을 발하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대의 고통으로 하느님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연옥 영혼들도 그대와 같은 입장에 있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



그대가 **고통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감스러워하지는 마십시오. 이름 있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의 능력을 알아듣지 못해서, 고통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폄하(貶下)하는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고통은 (본디) 천사적인 총명(을 지니도록 창조된) 사탄마저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할 정도로 모순적인 것입니다. 루이사가 한번은 그의 몸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위협이 무서워 움츠리기는커녕, 가서 자기를 칠 회초리를 들고 오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내가 흘릴 **모든 핏방울마다** 내 하느님께 드리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랑과 보속과 영광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루이사는 나중에 그 **악마**가 다른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건 쓸데없는 짓이야. 우리가 **그녀를 후려치면** 도리어 **우리의 손해이고 패배**일 것이 뻔한데 무엇 때문에 그 래야 하겠나?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낫겠어. 그걸 원치 않는 건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지만 고통받기를 원하는 자를 건드렸다가는 우리 손으로 우리를 해치는 격이 될 뿐 아니겠어?”

마귀는 그렇게 말하고 루이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사탄이 2000년 전에 희생적 고통의 힘을 충분히 깨달았다면, (유다인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을 열어 준 사건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던지 **고통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더욱더 진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딸아, **십자가**가 지닌 여러 칭호들 가운데 하나는 ‘**축제**’이다.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들 하느냐? 경축하고 기뻐하며 더욱 행복해하지 않느냐?”

십자가는 가장 값지고 그 무엇보다도 **고상한 선물**인데다 존재하는 사람들 중 유일하고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다른 어느 선물보다도 **더 즐거운 축제**이고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다.”

만약 **하느님 뜻** 선물과 함께 고통을 기리는 사람과 마주친다면, 이는 그대가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을, **하느님 뜻의 집**을 향한 여정을 무사히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을 만난 좋은 기회입니다.

고통은 그 선물을 받은 이의 삶의 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하느님의 뜻에 대한 모든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인간의 타락을 초래한 원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에 대한 보속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선물은, 하느님의 원초적인 계획에 따라 타락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고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즐거움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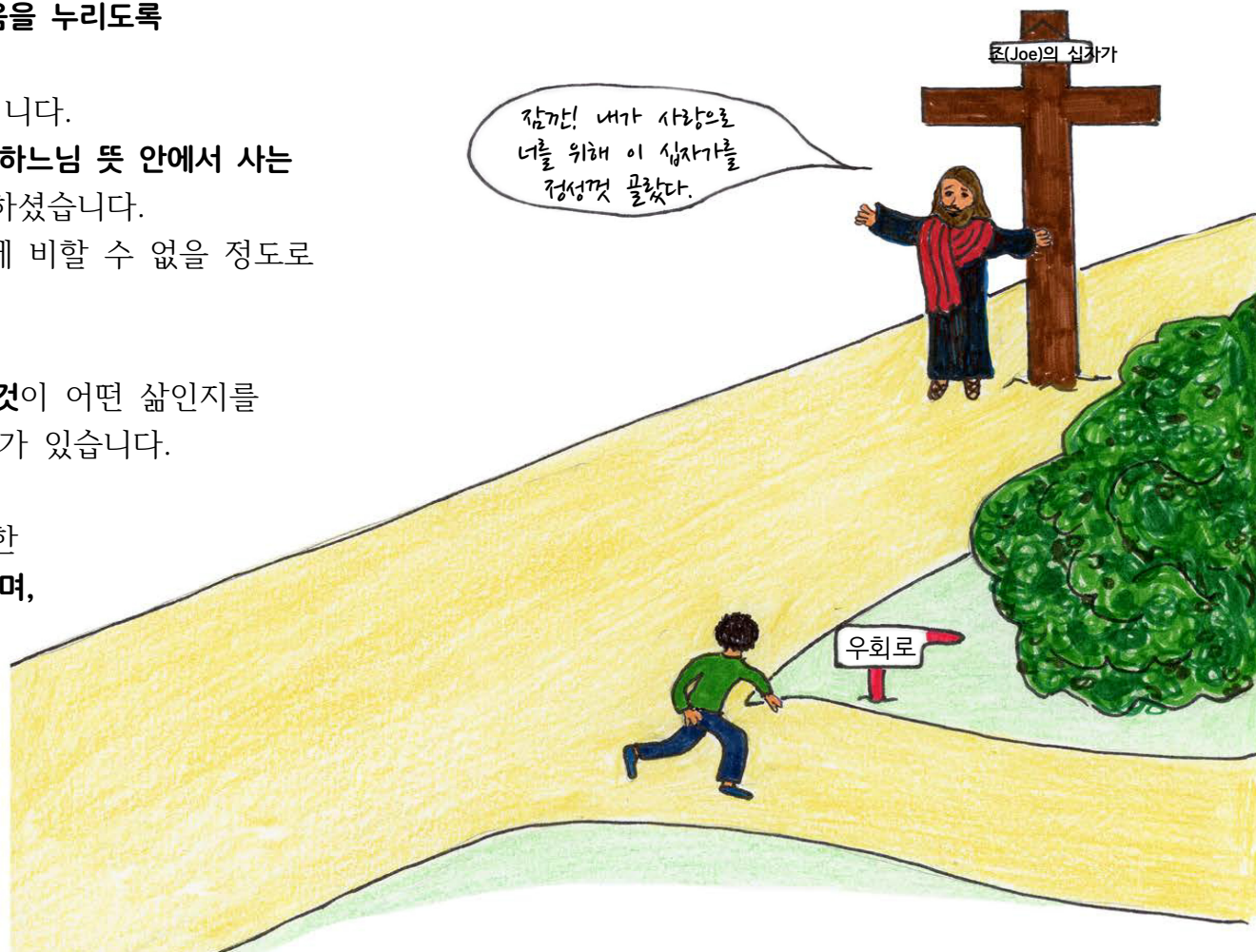
하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이들에게는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고통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들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생명으로 소유한 사람에게는 일체가 **거룩하고 신성하며, 고생이 끝나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도 자취를 감춘다.**”



이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고통이 사라지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단 하나의 대답만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각 **개인**을 위해 **세우신 계획과 그 사람의 협력 정도에 따라 고통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주제로 다룬 루이사의 구절들이 한결같이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은, **항구한 인내로 고통에 대한 앓을 얻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라라는 점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들은 지상에서 천상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입니다. 천상에는 고통이 없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용기와 이해심을 가지고 그대의 십자가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고통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의 고통이 엄습하면… **달아나기가 일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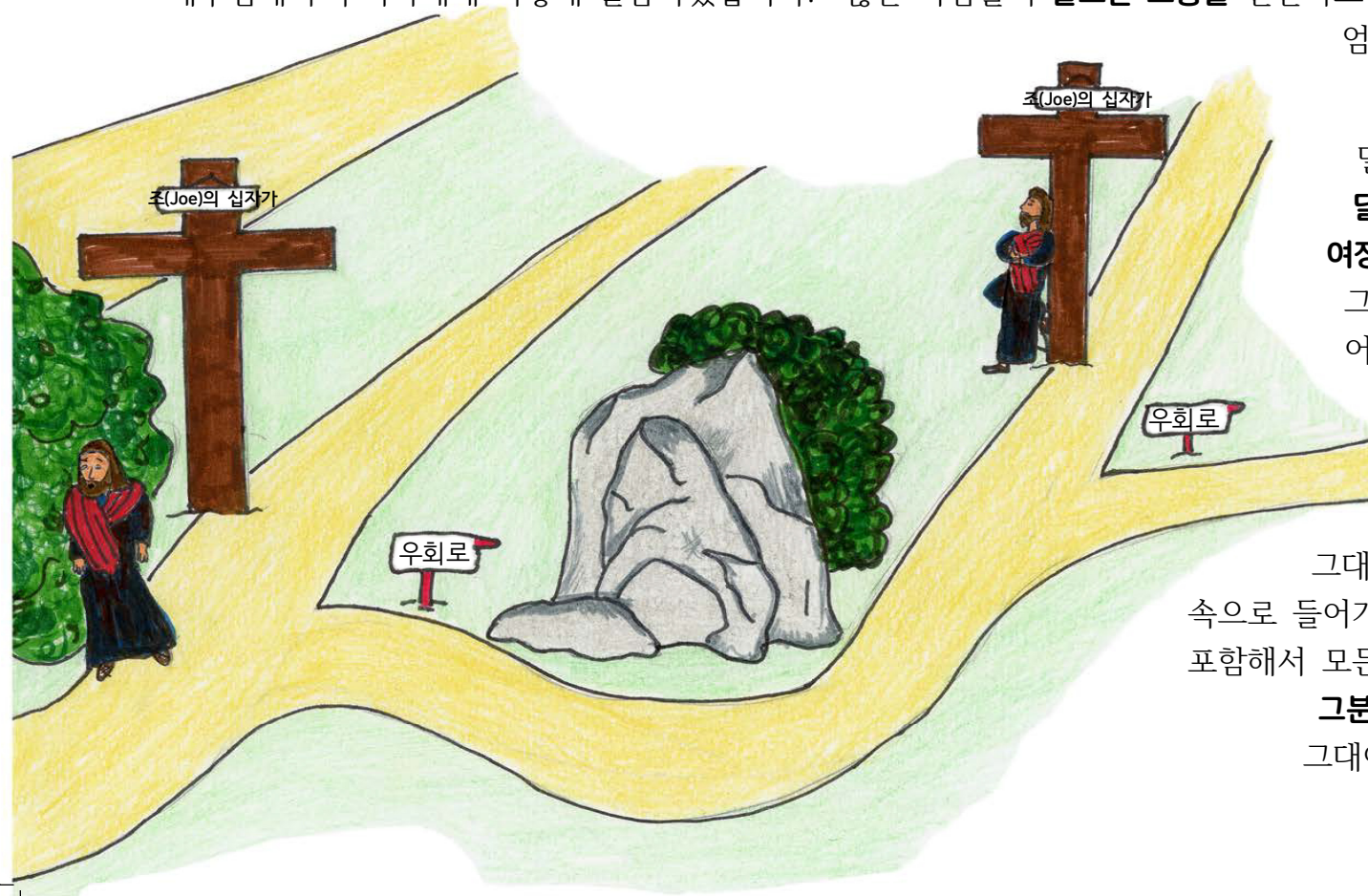
그대는 그대의 십자가들에서 달아나지 마십시오.

달아나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진도만 늦출 따름입니다.

그대를 위해 계획된 십자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필연적으로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대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지 꼭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이 지상에서 **천상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분 고통의 한 몫**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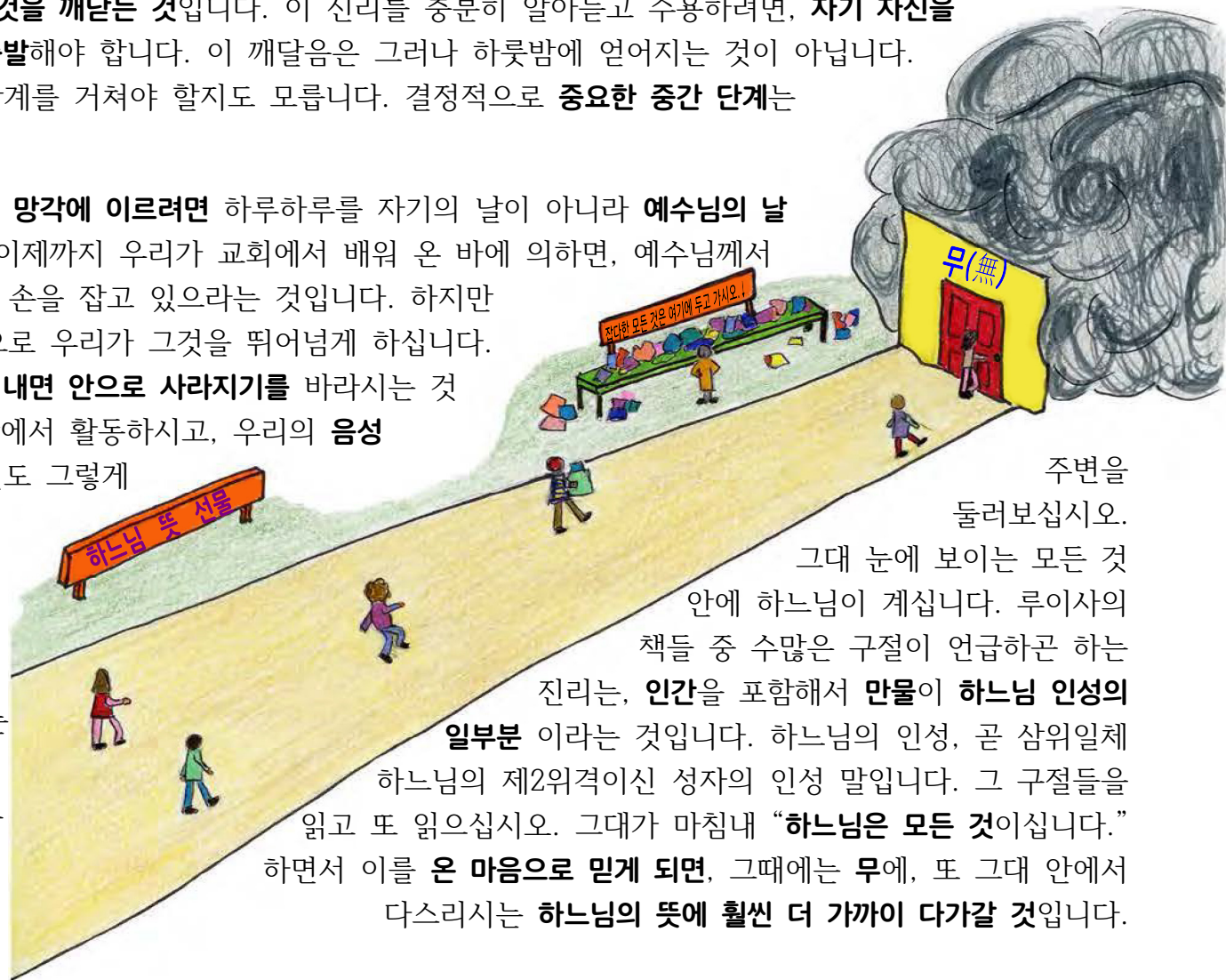
그분과 똑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것** 말입니다.



고통의 의미와 함께, **하느님의 뜻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또 하나의 어려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충분히 알아듣고 수용하려면, **자기 자신을 보되 무(無)로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그러나 하룻밤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어쩌면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중간 단계**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루이사에게, **자기 망각에 이르려면** 하루하루를 자기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처럼 지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 온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종일 그분의 손을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분의 손을 놓고 실제로 **그분의 내면 안으로 사라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활동**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의 **음성** 안에서 말씀하시고, 다른 모든 것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날이 이제 그분의 날이** 됩니다. 계속 그분을 동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자기 망각으로 무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뿐입니다. 그 다음 단계도 어려운 단계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이심을 깨달아야** 하니까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루이사의
책들 중 수많은 구절이 언급하곤 하는
진리는,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이 하느님 인성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인성, 곧 삼위일체
하느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의 인성 말입니다. 그 구절들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대가 마침내 **“하느님은 모든 것이십니다.”**
하면서 이를 온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때에는 무에, 또 그대 안에서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뜻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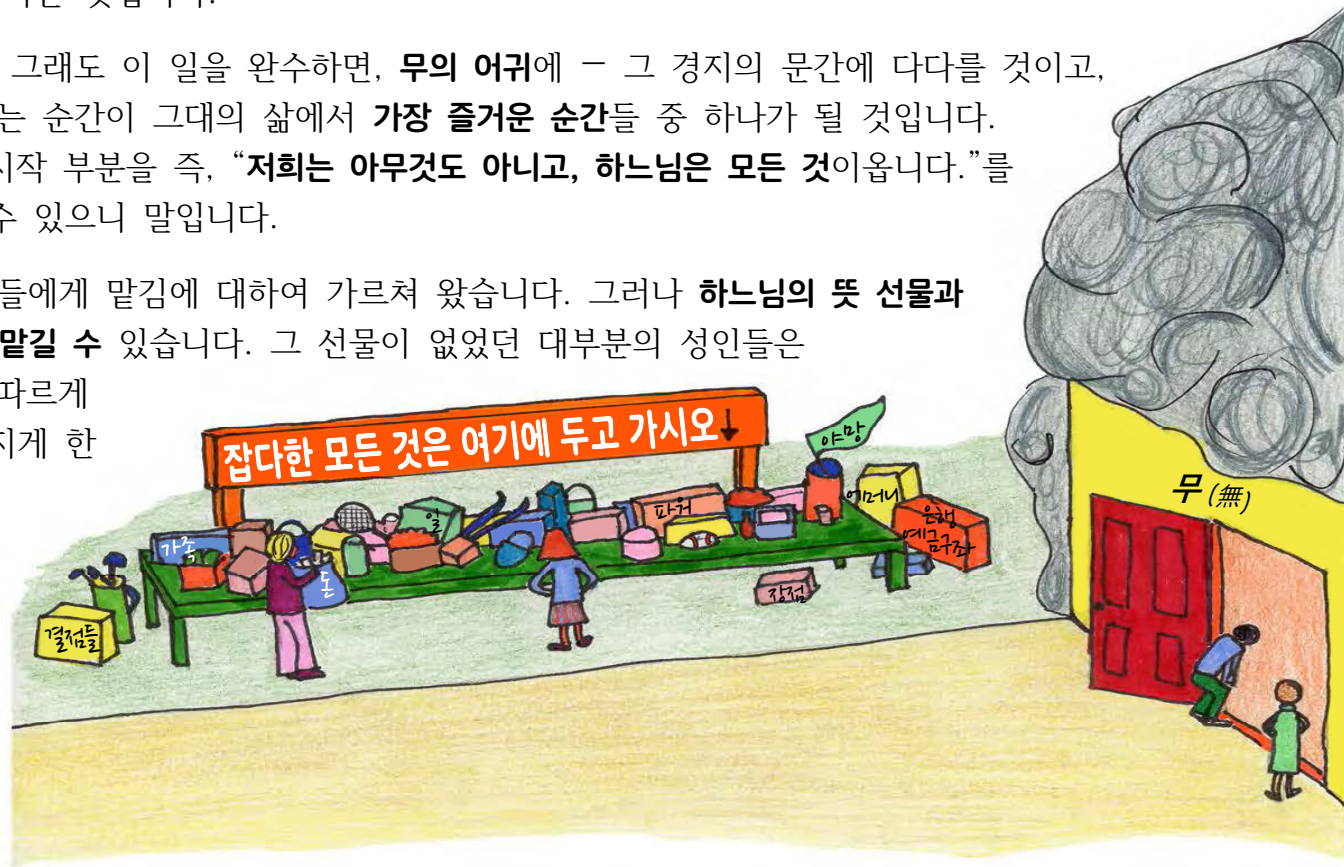
무를 향한 또 하나의 걸음은 말김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과정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여러 해에 걸쳐 그대가 그대의 것이라고 생각해 온 모든 것이 그분의 권리에 속한 것인즉, 그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김의 좋은 면은, 그대를 **무겁게 내려놓았던 것들**, 곧 청구서들, 골칫거리, 책임질 일들, 질병과 결점들도 그대의 것이 아니고 **전부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태가 지각되지 않는 것들, 이를테면 야망, 꿈, 구체적인 관계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추한 것이든 일체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의 삶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 일을 완수하면, **무의 어귀에** - 그 경지의 문간에 다다를 것이고, 이 문을 통해 실제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 그대의 삶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영성의 몇몇) 기도 시작 부분을 즉,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옵니다.**”를 실제로 **처음 체험**하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 말입니다.

교회는 지난 이천 년 동안 신자들에게 말김에 대하여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 선물과 함께해야** 그대 **자신의 뜻을 진실로 말길**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 없었던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들 자신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따르게 했습니다. - 영적 혼인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대가 그 선물을 받게 되면 그대의 뜻을 하느님께 바치고, 모든 것이신 분 안에, 곧 **하느님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무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며칠을 거둑거둑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하느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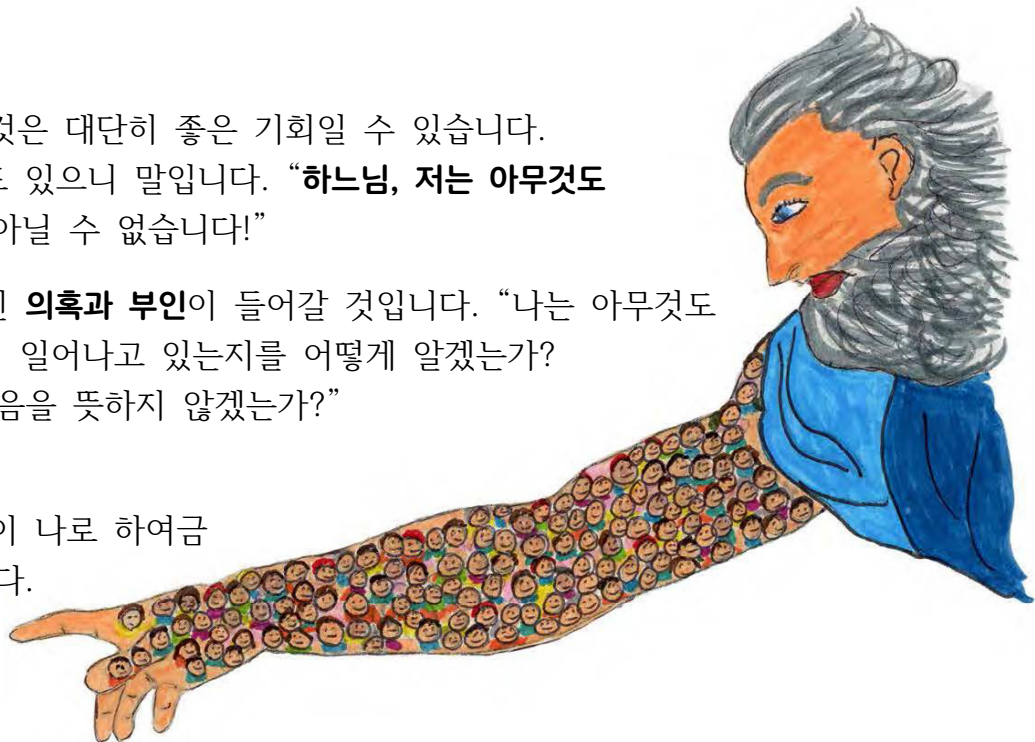
하지만 겉보기에 영락없는 이 허무감 속으로 끈질긴 **의혹과 부인**이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라면, 그런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게 어떤 것이 남아 있음을 뜻하지 않겠는가?”

그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 계시처럼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전히 의식하게 한다.
 그 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자 큰 빛이 “하느님 안의 생명!”하고 말합니다.

드디어 그대는 실상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언제나 **하느님 인성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 곧 **예수님의 인성 안에 있는 사람** -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대는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하느님 뜻을 한몫 나누어 받았으니,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것’이니 ‘나의 것’이니 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무엇이냐 다 ‘우리의 것’ - 우리의 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고통, 우리의 꿈, 우리의 몸, 우리의 지혜, 우리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공유**한 까닭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선물로 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아무것도 하느님의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일체 만물이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았다면**,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모든 것이신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피조물로서 수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 이제 이 큰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십시오!





마침내 그대가 **하느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관계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뜻을 공유**하게 하시는 그대는 **그분 인성의 한 부분**이니 말입니다. 그대와 하느님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선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것이든 상상적인 것이든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일량은 극복하십시오.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양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 뜻의 선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날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가도록 분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서로 다른 개성과 별개의 목소리를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나친 요구를 하는 엄격한 주인 같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사실 그대로 완전하고 **애정 깊은 아버지**인 그분을 체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대의 가장 좋은 친구**, 그대 생명의 사랑이 되시어, 가르침과 격려를 주시며 대화를 나누실 것이고,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떠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를 떠나는 것은 당신 자신을 떠나는 것이 되니까요.

성령님도 잊지 마십시오. 그분 고유의 특성은 그대에게 신비로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개성이 빛을 뿜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활동을 통해 **흥분과 놀라움과 유머와 감동**을 자아내시는 분이니까요.

그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소통에 나날이 더욱더 속달되고 있습니다. 결코 그 목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 그분들과 **침묵의 언어**를 나눕니다. - **영적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솔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 생각, 영상, 꿈, 또는 환시**를 체험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서 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대가 정녕 하느님과 대화 속에 있는지에 대해 그대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싹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필요로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대는 **구체적인 표징들**을 받을 것이고, 그 대부분은 섬세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대가 작은 것들 속에 계신 그분들을 알아보기를 바라시고, 이윽고 **모든 것 안에 계신 그분들을 알아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대에 대한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어리둥절해진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다종(多種)의 혼합된(mixed) 메시지를 받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고 합시다.

바로 그 순간 MIXSIG라는 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그대 옆을 지나갑니다. 거기에 그대의 답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대의 그 **느낌**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가 **웃음**을 터뜨리게도 하신 것입니다.



그대는 하느님 **성삼위와 함께 4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 그대 자신의 **개인적이고 신적인 컨소시엄(consortium)**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아버지**의 무릎 위에 기어올라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청**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행실 때문에 슬퍼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바르게 행한 일들을 상기시켜 드리며 그를 최상의 빛 안에 넣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성령**의 가장 훌륭한 응원자가 되어, 이 시대에 땅을 새롭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어, **만물과 만인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보기 시작**하리니, 하루 중 세세한 것들까지 모조리 다 의미심장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대에게 **하느님의 신비를 설명**해 줄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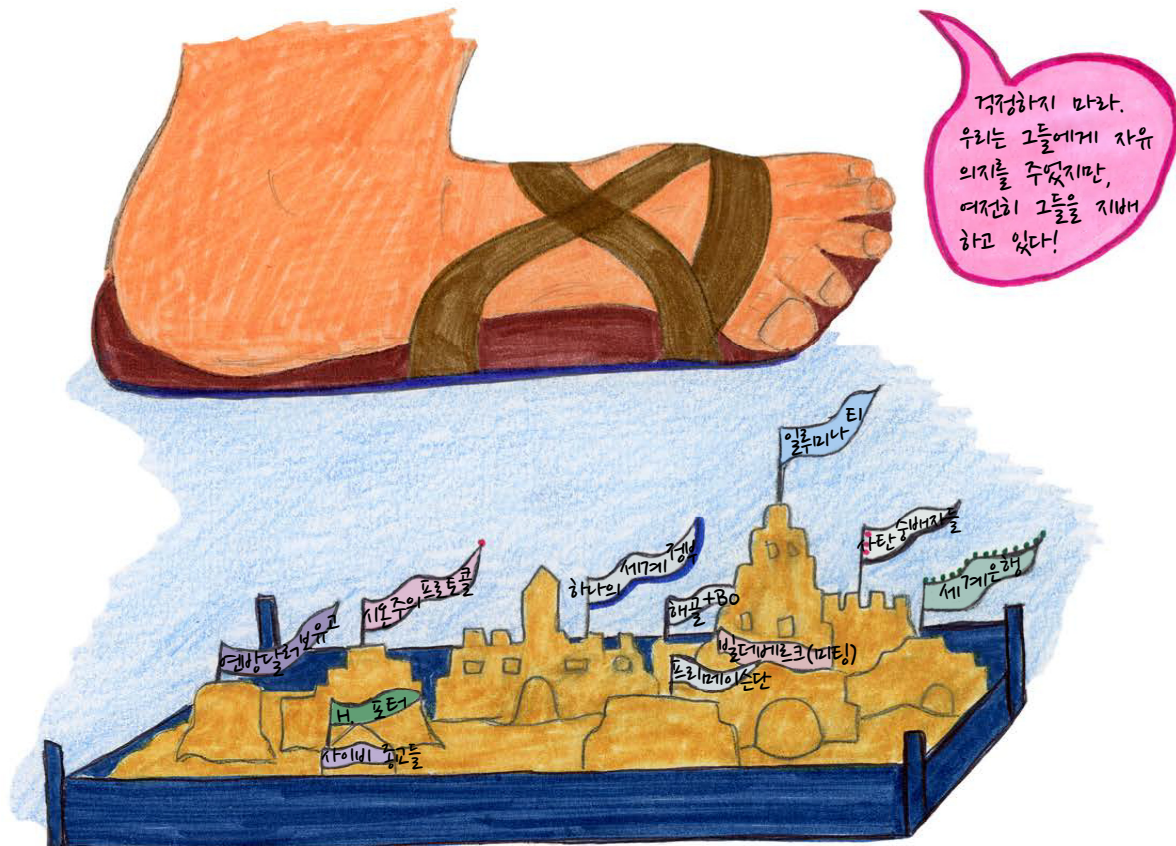
이 길 어딘가에서 그대는 드디어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집에 와 있구나!** 하느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이나 내가 집에 와 있다는 것이나 다 **같은 뜻**이라. 여기에 내 가족이 있다. 가족과의 관계가 없는 집이라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이제 **그대와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이 한 가족**입니다. 그분들은 그대로 하여 **즐거움**을 누리고 그대는 그분들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대가 집에 와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그대 안에서 다스리시고**, 그리하여 그대가 삼위일체 **하느님과 역동적이고도 신비로운 관계** 안에서 한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뜻을 선물로 받았음**을 나타내는 **가장 큰 표징이 평화라면, 행복은 그대가 하느님 뜻 안의 집에 와 있음을 나타내는 압도적인 표징일** 것입니다. 이 행복은 아담이 동산에서 하느님과 누렸던 것과 같이 그대가 **하느님 가족과 누리는 친교의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에 걸쳐 하느님의 뜻 선물과 함께 살아오면서도 **아직 불행해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대화**입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그분들과 나누는 대화가 그대의 행복을 이룰 것입니다.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동반을 받지 않고 탐구하기에는 너무나 큰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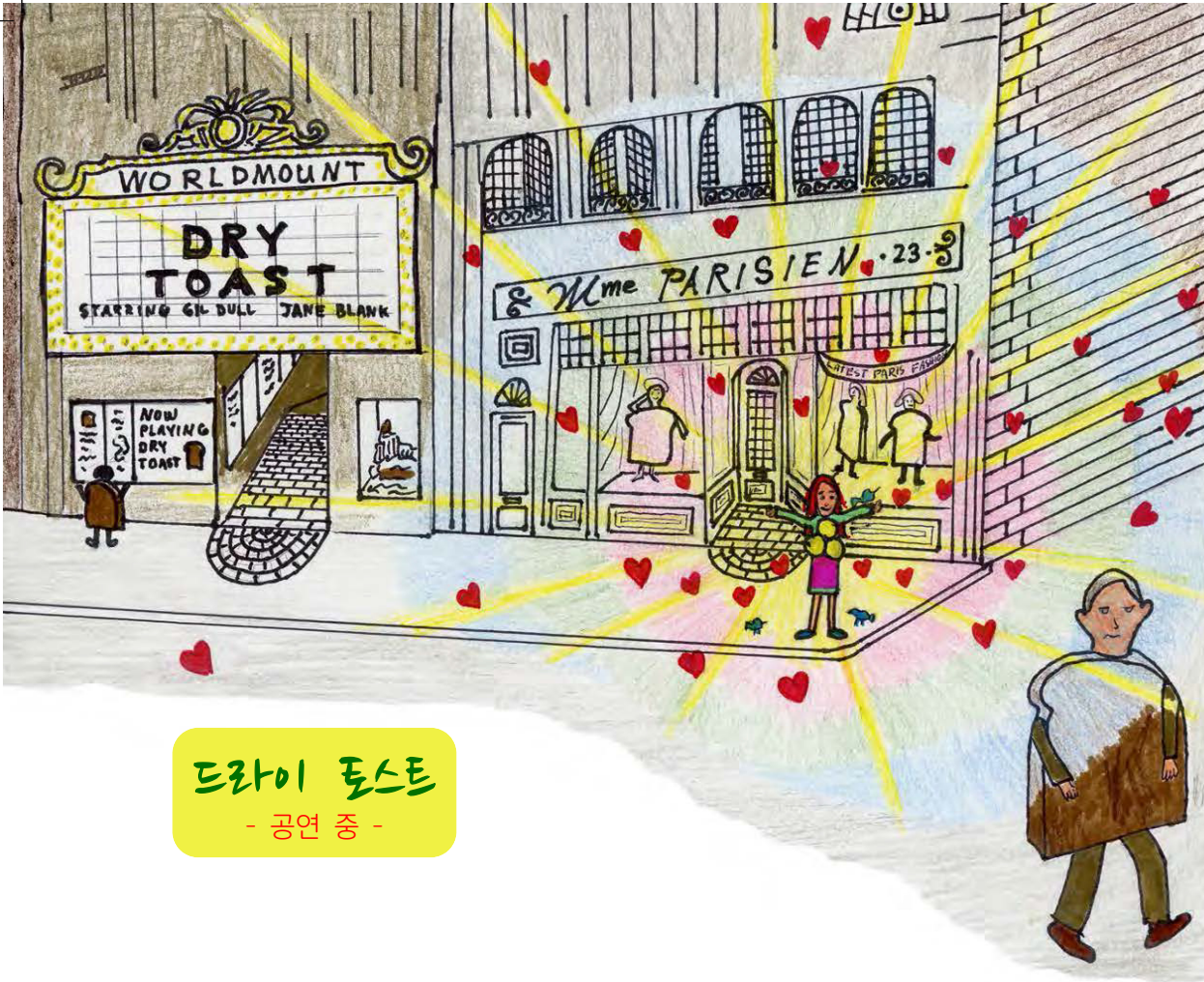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지배
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또한 그대가 그분들과 누리는 **행복을 저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지러운 혼란이 그대 주변을 휩쓸고 있을 때에는 당신들과 함께 공중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는 고통이 귀한 선물**이라는 것과 그대의 고통이 **그분들의 고통**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에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계속 자행되고 있는 **온갖 악의 음모**가 걱정스럽습니까? 어쩌면 그분들께서 그대에게 모든 것을 내다보는 **선견 지명**을 주실지 모릅니다.



드라이 토스트

- 공연 중 -

즐거움이 바로 창조 사업의 전(全)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느님과 친교와 맞겨울 수 없습니다. 그대가 온종일 그분들과 나누는 대화는 그대의 은밀한 기쁨, 그대의 하늘과 땅이 되리니, 이에 비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드라이 토스트처럼 (메말라) 보일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친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분들과 비슷하게 그분들의 모습으로 창조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 세 위격 사이의 친교 속에 계시니 그대도 같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대화가 없다는 것은 그분들과 친밀한 사이가 아님을 뜻합니다.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친교가 없는 것이고, 친교가 없으면 닮은 모습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그분들께서 그대를 그만큼 더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대도 그분들을 그토록 좋아할 것입니다. 이 상호 사랑과

하느님과 그대의 친밀한 관계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전쟁’이라고하신 것의 한 부분입니다. 루이사의 책들은 모든 대화와 교환마다 또 그대가 알게 된 새로운 진리마다 제각기 **모든 영혼들과 모든 조물들 안에 반영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 루이사 및 우리 앞 세대의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의 영혼 안에 넣어 두었기 때문에, 루이사나 다른 이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것을 **우리는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즉, 그대가 **오늘 알게 된 진리**는 다른 이들이 이미 그대 안에 넣어 둔 것과 같은 진리이고, 이들이 **서로 만난 셈**입니다.

하느님 뜻에 대한 진리를 얻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숨은 군대가 있어서, **모든 영혼들 안에** 그 진리가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히 흘러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 안에 **거룩한 진리들이 축적**되면, 세상을 정점에 -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臨界點)**에 다다르게 할 것입니다. 일단 이 점에 다다르면 ‘하느님 뜻의 나라’가 신속히 땅에도 도래하리니, 땅에 있는 그 무엇도 그 도래를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가 **그대 행위의 중요성**을 알고 그 행위가 **모든 영혼들 안에 반영**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승리의 행위로 인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행위가 그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며 즐기는 것**보다 더 큰 행위가 될 수 있겠으며, 또한 영혼들 안에 반영될 수도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창조 사업의 목적**이 모든 영혼들 안에 신비롭게 울려 퍼지는 행위입니다.

그대가 (에덴) 동산에서처럼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대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열망을 영혼들 안에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도록 영혼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함께 살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그 무엇도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니, 그렇게 **타고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대의 행위들은 이 진리와 함께 영혼들을 마주하며 **마음들이 변화되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루이사에게, **세상에 있는 영혼들**은 자신들의 악에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의 행위들이 일으키는 **전쟁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그분 ‘**사랑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전쟁’에 대하여 루이사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딸아, 한 번 더 말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전쟁을 걸고자 한다. -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 - 하지만 그들이 **지칠 무렵이면 나도 전쟁을 걸겠다.** 악에 물리고 환멸을 느끼며 망상에서 깨어나 상실의 고통을 겪다 보면 그들도 나의 전쟁을 받아들일 태세가 될 것이다. **내 전쟁은 사랑의 전쟁**이니, **내 의지가 하늘에서 그들 가운데로 내려올 것이다.** 내 의지 안에서 행해진 너의 모든 행위와 다른 이들의 행위들이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터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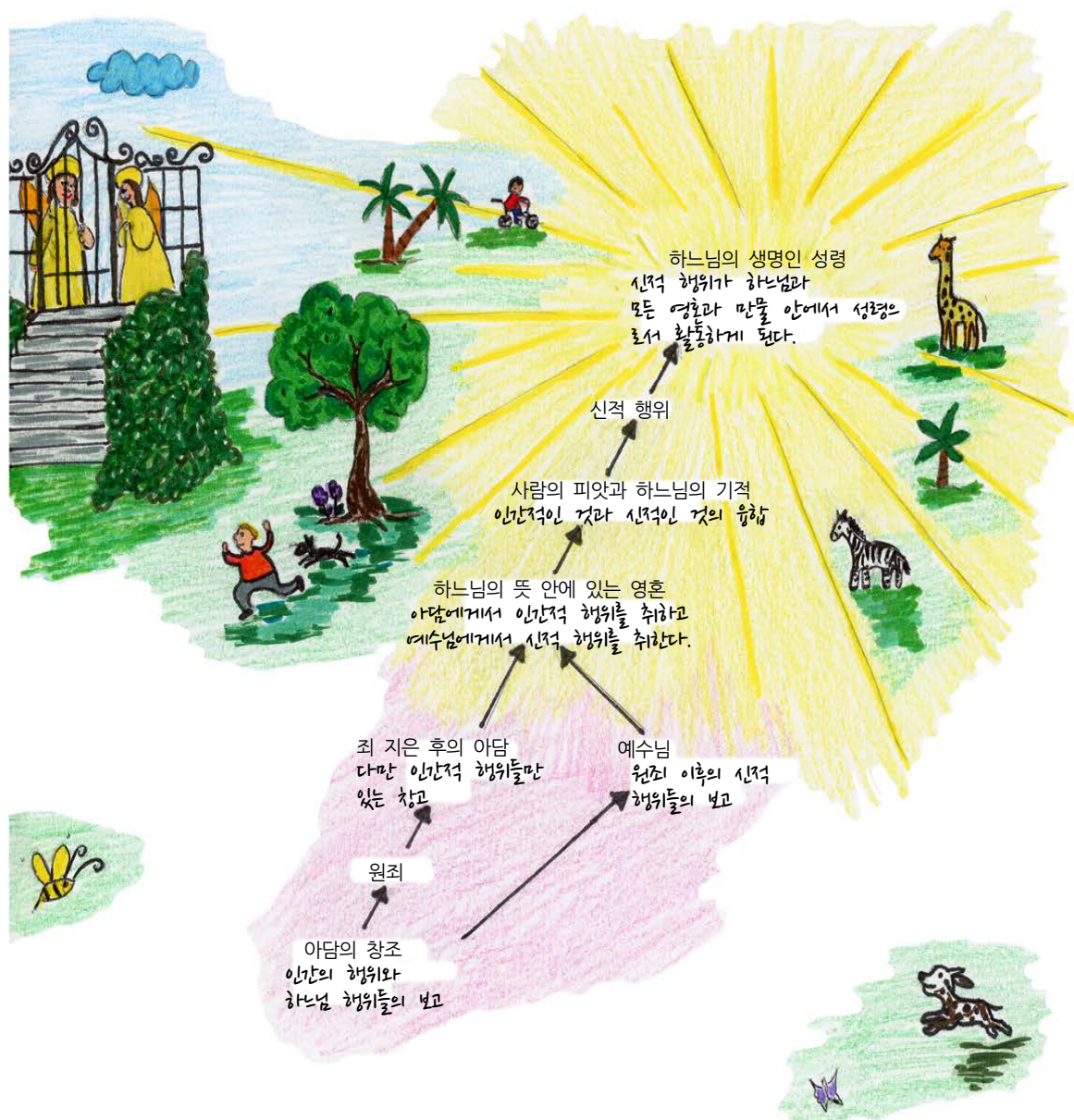
그것은 피를 흘려 가며 벌일 싸움이 아니다. **사랑을 무기로 쓸 싸움**이니 그들에게 **선물과 은총과 평화**를 줄 것이다. 배은망덕한 인간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것들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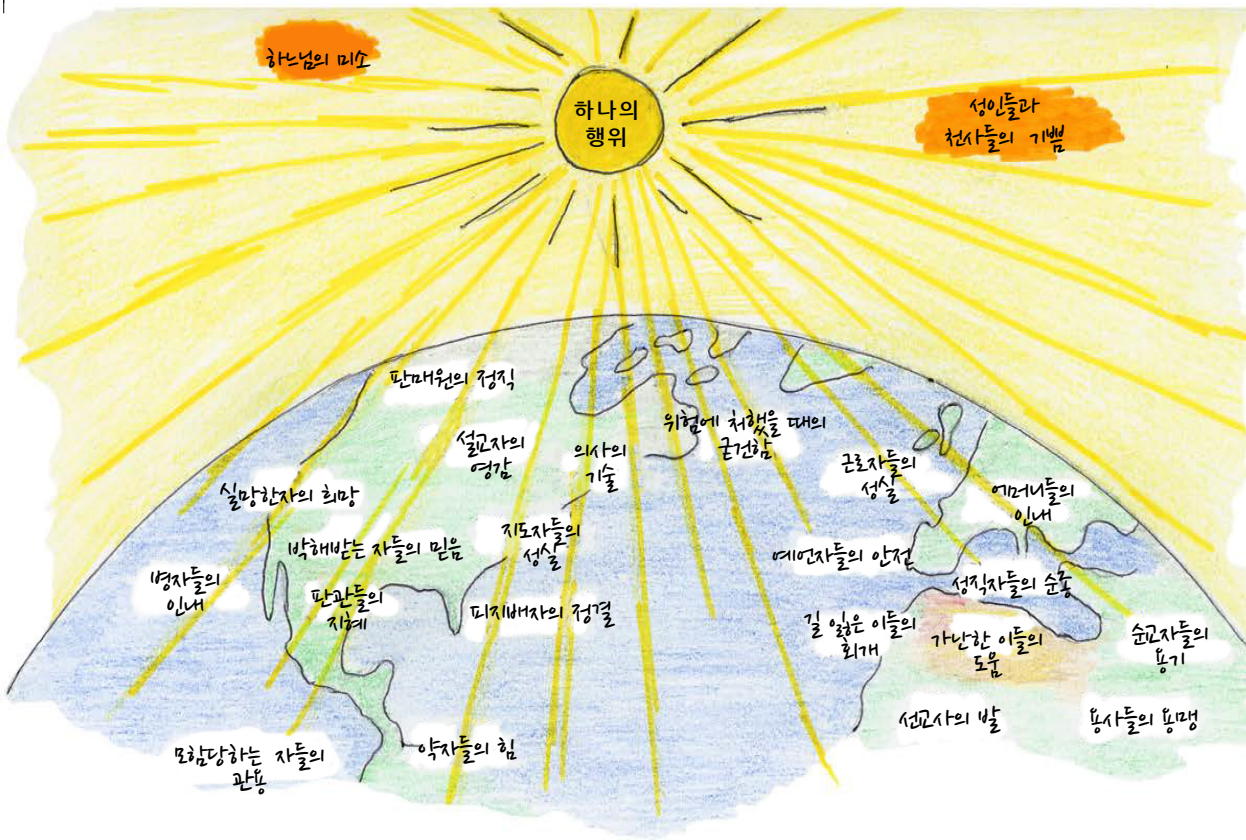
“나의 이 뜻은 **하늘의 군대**로서 거룩한 무기로 인간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압도하면서 **빛을 줄 것이다.** 이 빛은 내가 인간을 부유하게 하고자 줄 선물과 재보들을 보기 위한 것이지, 악을 보기 위한 빛이 아니다.

내 의지 안에서 수행된 행위들은 그 내부에 **창조력**을 지니고 있어서 인간의 **새로운 구원**이 될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땅에 가져올 것이다. **새 시대를, 인간의 악에 대한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런 무기와 선물과 은총들을 이룰 **내 뜻 안의 행위들을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라. 사람들 가운데로 내려와서 그들과 ‘사랑의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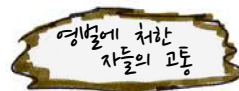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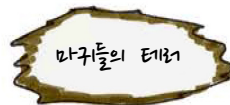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에 대하여 여러 번 설명하셨거니와, 그 구절들 가운데서 딱 한 구절만 찾아 읽어 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행위는 하나이지만 태양처럼 모든 피조물 위에 빛살을 퍼뜨려 어떤 것은 아름답게 하고 어떤 것은 은총으로 비옥하게 한다. 또한, 얼어 있는 마음들은 녹이고, 굳은 마음들은 부드럽게 하고, 어떤 이들에게서는 어둠을 몰아내고, 다른 이들은 깨끗이 정화하며 불태운다. 이처럼 하나인 행위가 각자에게 요구되는 다양

한 효과를 내는데, 각자의 마음 바탕이 준비된 정도에 따라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내 뜻 안의 행위가 하나 더 증가하면 모든 피조물 위에서 빛나는 태양이 하나 더 증가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役事)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에 의해서 하느님의 행위가 하루에도 수없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행위들이 바로 성령의 행위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전쟁’ 속에서는 사랑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셋째 위격(인 성령)께서 (천지 창조 이전의) 혼돈 위를 휘돌며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땅을 재창조하십니다. 한 번 더 땅 위를 휘돌며 원래의 질서대로 만물을 복원하시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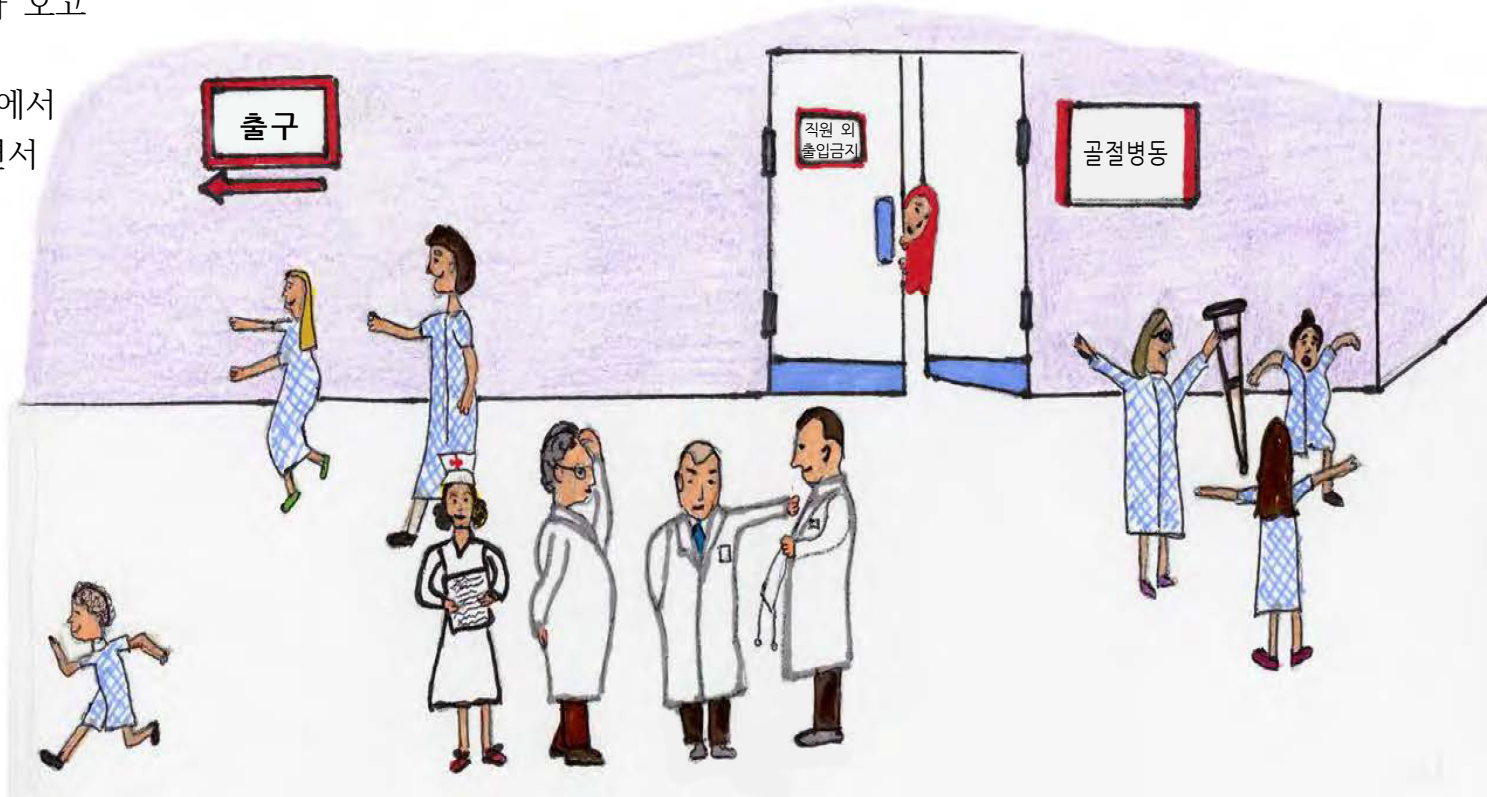
교회도 더 이상 방관자처럼 옆에 앉아 성령께서 오시기를 청하는 노래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이들의 행위들로 하여 성령의 현존이 그 은사와 함께 땅에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매일이 새로운 성령 강림절이 될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린 이들을 위하여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때가 오고 있습니다.

치유 봉사자들이 이 병동에서 저 병동으로 옮겨 다니면서 병자와 부상자들에게 **안수**를 해 주는 바람에 병원들이 텅 비기도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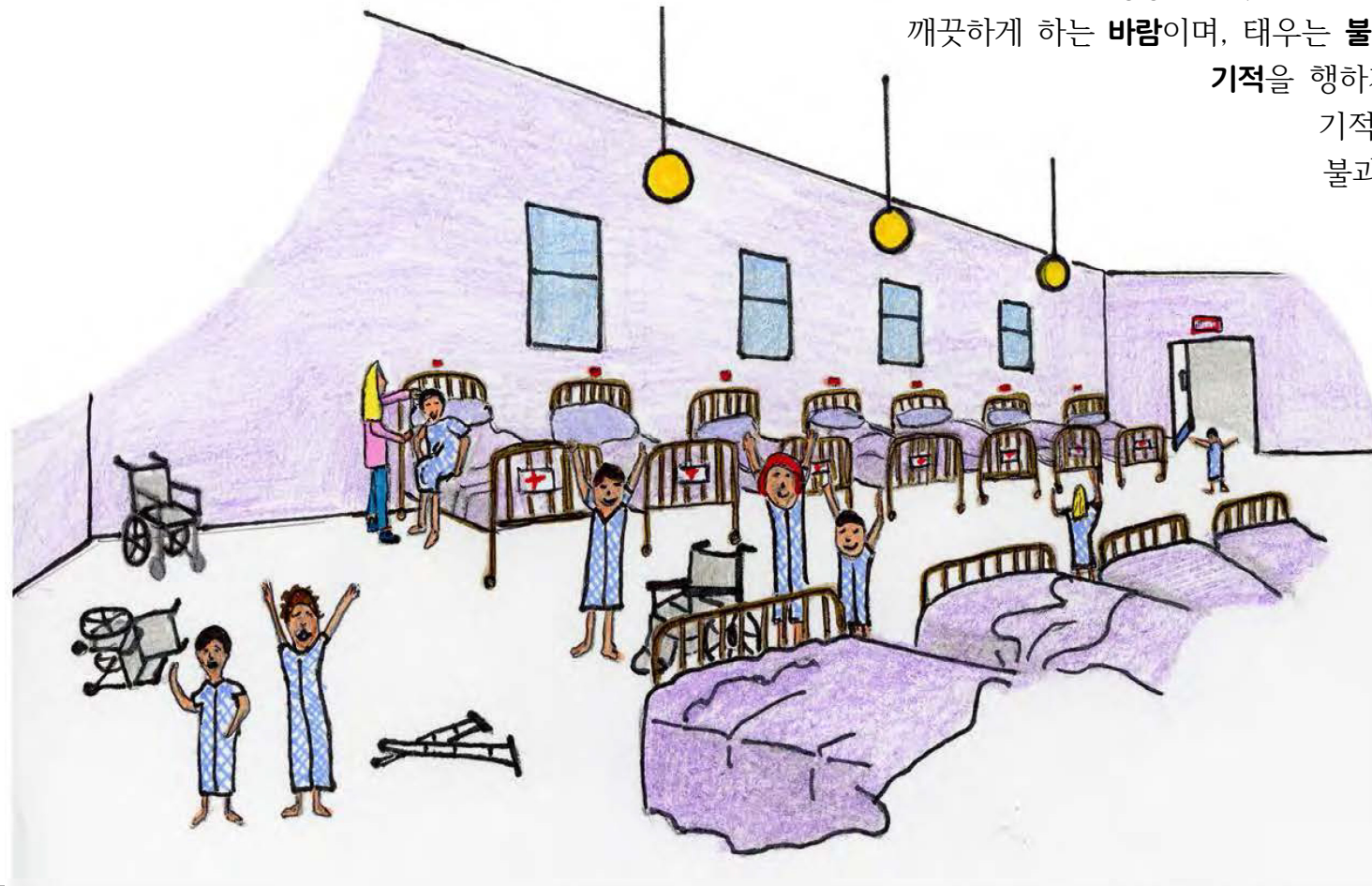
또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다수의 비신자들이 응답하리니, **성령의 모든 은사**가 어느 때보다 **풍성**히 쏟아질 때가 온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들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교사의 발이 되고, 설교자의 혀가 되고, 약한 이들의 힘이 되고……** 여타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적들 배후에 있는 기적들**입니다.

“나의 뜻을 행하는 영혼들은 겉보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을 다 한다. 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은밀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요, 깨끗하게 하는 **바람**이며, 태우는 **불꽃**이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통로에 불과한 반면에, 내 뜻을 행하는 그들 안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영혼이 하느님 뜻 안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나오는 능력과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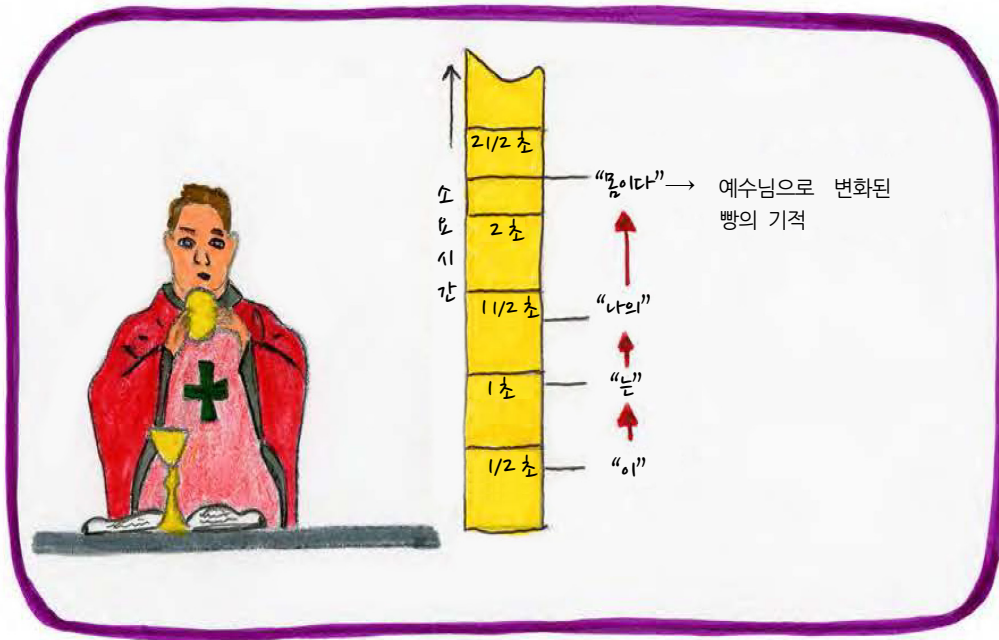
예수님은 우리의 **단순한 인간적 행위들을** 실상 가장 큰 기적인 **하느님의 행위들로** 바꾸셨습니다.

“내 거룩한 뜻의 더없이 소중한 딸아, **내 거룩한 의지**는 그 자체로 **지속적인 기적**이다. 그 자신의 행위와 생명을 형성하기 위하여 **피조물의 비천한 행위 안으로** 내려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를 일으킬 능력은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내 의지**는 모든 것을 둘러싸는 능력으로 **어디든지 스며든다**.”

피조물의 행위를 매혹하는 빛의 입맞춤으로 그것을 **감동과 변모와 일치**에 이르게 하고,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피조물의 그 행위 안에 **내 의지의 행위**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도 **피조물의 행위**를 파괴하는 대신, 그 안에 **내 의지의 행위**를 **심어 넣을 공간**으로 그 행위를 이용한다. 피조물의 행위가 내 의지의 행위를 기를 빈 공간으로 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것이 **인간적 행위**로 보이지만, **내부에는** 놀랍고 거룩하고 **신적인 행위**가 - 크나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의 행위는 변하지도 파괴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적(의 힘)이 **인간의 행위**를 **하느님의 행위와 분리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는 이 기적이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미사성제** 중 빵과 포도주에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니 말입니다. 즉, (누룩 없는) **빵인 제병**이 **예수님의 몸과 영혼과 신성으로 변화**되지만 빵의 형상은 파괴되지 않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지만 그 모양과 맛은 여전히 포도주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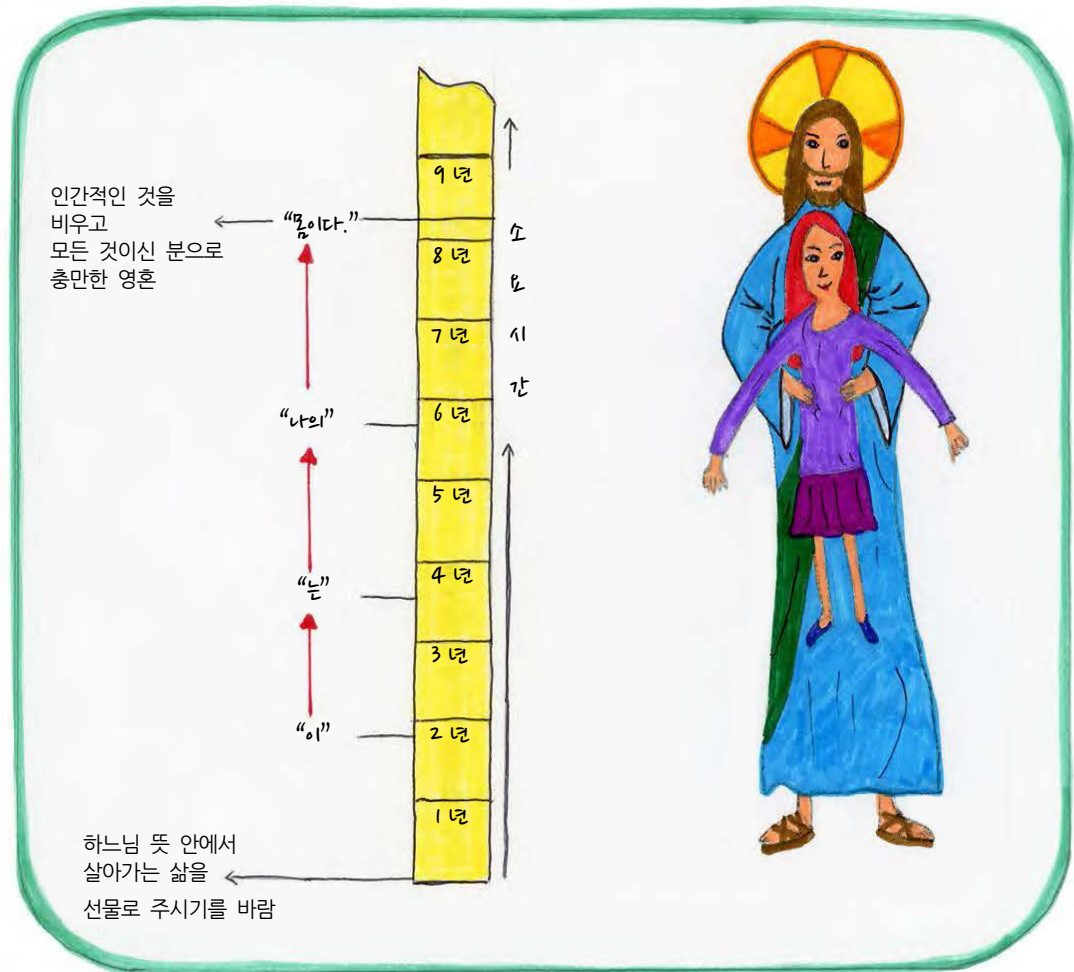


이는 또한 하느님께서 **당신 뜻 안에서 사는 영혼**에게 일으키시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신화(神化)되며 살아 있는 성체**가 됩니다. 그러나 미사 때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것과는 달리, **사람을 축성하여** 살아 있는 **완전한 성체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빵과 포도주는 사제가 양손으로 거양하며 ‘축성 말씀’을 발하는 순간에 변화되는데 반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성하여 (그렇게 변모되게 하려면) **꽤 긴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에는 제거해야 할 죄나 결점이나 나약이 없고, 하느님 뜻에서 떨어져 나간 의지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사제 (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 있는, 흠 없이 **완전한 성체가 될 때까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뜻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는 때가** 되면, 우리는 파괴되지 않고 **신화**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제2위이신 분 안에 있는 우리 위치에서 **다른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울 것이고, 그들이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오도록** 도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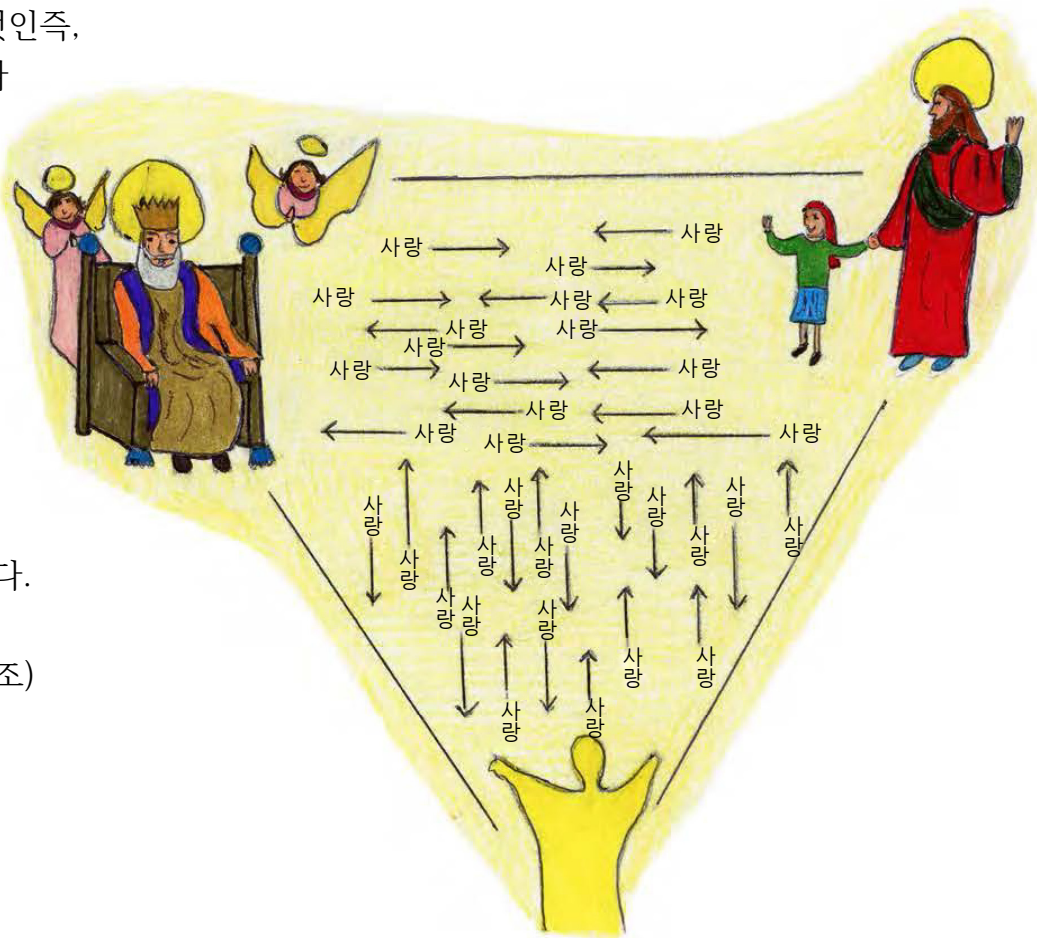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의미심장하고도 매우 놀라운 일은 하느님 뜻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본질입니다. 하느님 안에 거룩하신 삼위가 계시고, 이 삼위가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하나이기에, 하느님은 삼위이시면서도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이 삼위에게 본질적인 하나의 특별한 활동, 곧 그 신적인 현동(現動)은 하느님의 신성 안에서 삼위 상호 간의 사랑의 교환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데서 나오시는 성령이 다시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인즉,
하느님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는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의 교환이고, 이 사랑의 교환에서 나오시는 성령이 다시 사랑을 돌려줍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영원한) 현동입니다.

오직 하느님의 뜻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하느님의 그러한 현동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뜻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의 방식으로, 곧 성령이 나오시게 하는 그 신적인 방식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선물과 함께, 진실로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 모습으로’ (창세 1,26 참조)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또 다른 **내적 활동**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거룩한 회의**입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말씀의 강생이 결정된 그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루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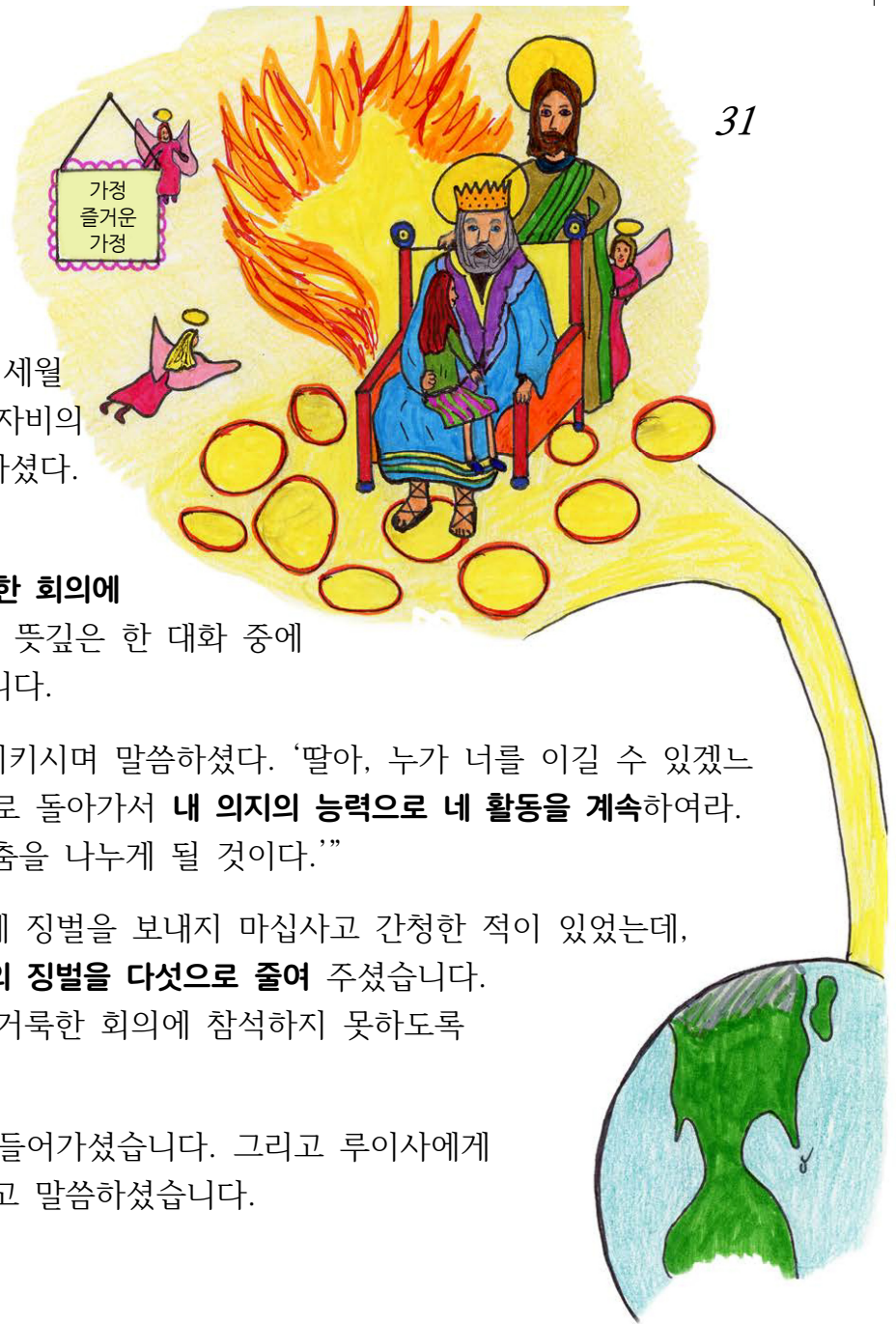
“거룩하신 하느님께서는 넘쳐흐르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피조물을 대하실 때 입고 계셨던 정의의 망토를 무한하신 자비의 망토로 갈아입으셨고, ‘**말씀**’을 **세상에 내려 보내시기로 함께 결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때가 왔음을 우렁찬 소리로 선포하신 것이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하느님의 뜻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느님과 나누신 가장 뜻깊은 한 대화 중에 **메시아의 강림을 간청**하셨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내셨던 것입니다.

“이윽고 나의 눈물과 기도에 항복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안심시키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누가 너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 내가 졌다! 이제 **하느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는 땅으로 돌아가서 **내 의지의 능력으로 네 활동을 계속**하여라. 그것이 만인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하늘과 땅이 평화의 입맞춤을 나누게 될 것이다.’”

또한 **루이사**도 그 **거룩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번은 아버지께 징벌을 보내지 마십사고 간청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루이사에 대한 사랑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열 개의 징벌을 다섯으로 줄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을 삼위일체 하느님의 거룩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멈춰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루이사에게 “오, **성삼위**께서도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던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그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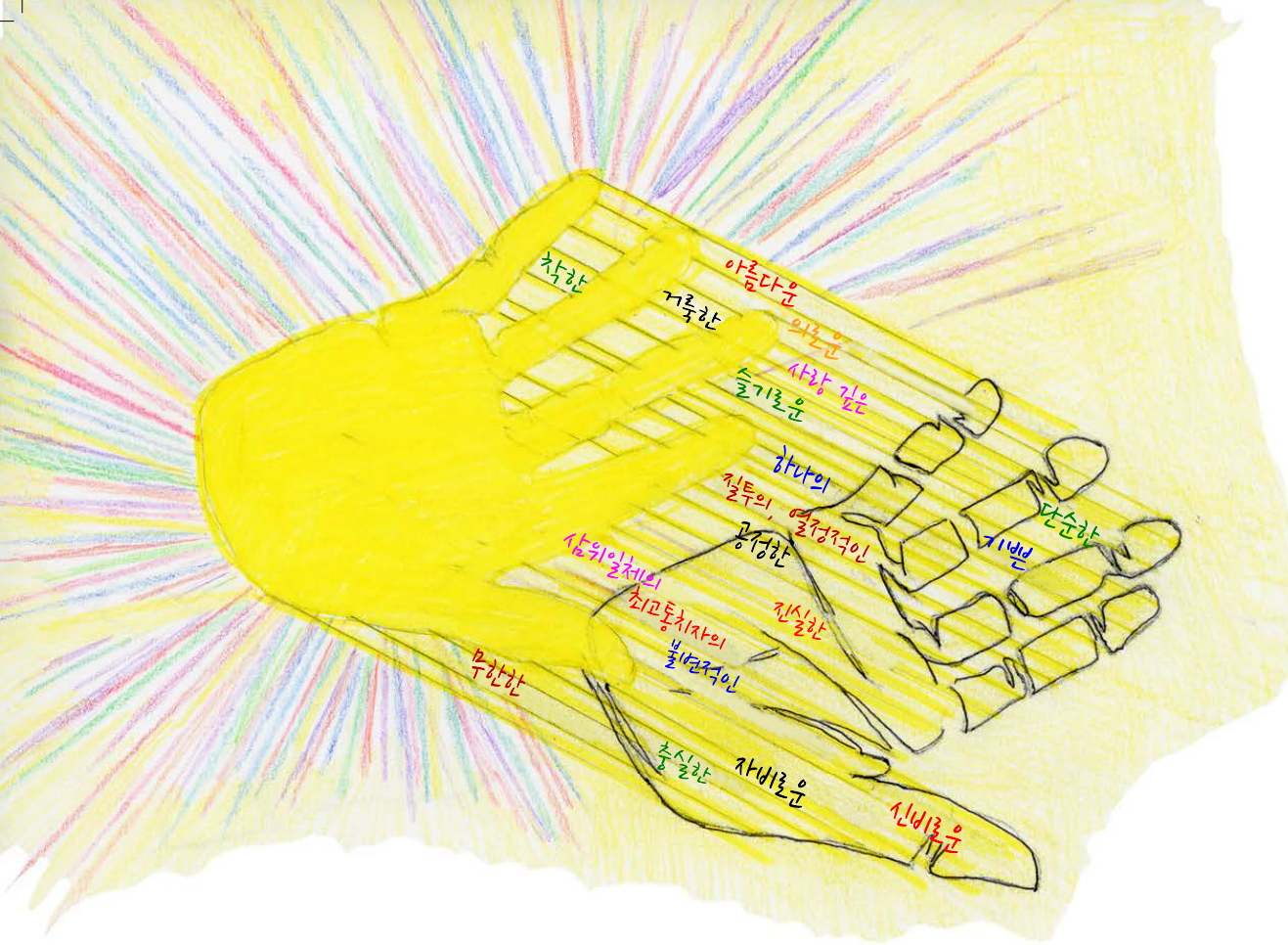
하느님께서서는 내적 활동들 외에 또 한 가지를 더 가지고 계시니, 바로 **외적 활동들**입니다. 이 외적 활동들은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것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나누이지 않고 **함께하시는 활동**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는 아버지와 성령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성령께서 불 혀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을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도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같은 활동을 나누임 없이 함께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외적 활동들도 그분들의 것입니다. 그대는 일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홀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들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느님의 현동과 회의에 그대가 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삼위 하느님과 함께 넷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활동**이 하느님의 현동과 회의 밖에서 일어나더라도 하나의 행위와 목소리로 일치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냅니다. 태양으로 하여금 그 빛으로 마룻바닥 위를 휩 지나가게 하는 것에서부터 다양한 효과들을 내는데, 이제 그대가 그 행위와 목소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대와 **이야기**를 하면 - 너무나 놀랍게 보이겠지만 -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대와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또 어떤 이가 그대를 **축복**하거나 **저주**하면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저러나 태양을 보십시오. 그대가 그분들과 함께 그것이 빛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느님과 그대가 내적이든 외적이든 인간적이든 신적이든 모든 활동을 함께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활동 중인 그대를 떠나시거나 그분의 활동에서 그대를 배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을 떠나시거나 배제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며 당신의 **속성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하느님은 영이시니** 그분의 **속성들이** 곧 그분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기쁨, 행복, 자비, 정의, 창조성, 유머, 선성 및 나머지 모든 것이 그분의 다리요 팔이며 손과 발이요 머리이며 다른 모든 **지체**들입니다.

그대와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짐에 따라,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느님의 속성들** 가운데에서 그대가 독특하게 **참**

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대가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하느님의 이 **속성들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성이 신성에 대항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원래 계획은 **인성이 신성과 불가분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추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재능과 다른 특성들은 **신화(神化)의 기적**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파괴되지 않고 **하느님의 속성들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하느님의 속성들을 받으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바다들을 어머니 위에 쏟아 부으셨을 때였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창조 사업의 여섯 날을 겪으셨습니다.

“나의 잉태는 창조 전반에 걸친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능가하는 일이었고, 따라서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피앗’으로 내 안에 그 여섯 단계에 이르는 일을 수행하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내 영혼 안에 그분 뜻의 충만하고 전적이고 완전한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나를 얼마나 신성의 높이에까지 들어 올리셨는지!”

루이사도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창조된 세계 안을 순례하면서 ‘거룩하신 피앗’이 그 창조물들 안에 이루신 업적들을 따라다니다가 에덴 동산에 이르렀는데,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다. 사람을 빚으시며 주신 사랑과 선성과 거룩함 및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때 그분은 또한 그분 자신을 온통 사람 안에 쏟아부으시어, 사람이 그분 자신과 그분의 신적 특성들로 완전히 가득 차게 하셨고, 어찌나 많이 쏟아부으셨는지 밖으로 넘쳐흐를 정도였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람에게 더없이 영예로운 일을 부여하기도 하셨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사랑과 선성과 거룩함과 능력을 활용하면서 바로 이 재산들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이었다. 그 신적 특성들이 내 안에 흠뻑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들은 창조 사업의 그 날들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뜻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바다들 및 **하느님 속성들의 바다들을 쏟아부으시게** 하겠습니까? 그 답을 루이사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창조된 만물 사이를 순례하는 동안 하느님의 속성들이 자신 안에 흠뻑 스며들게**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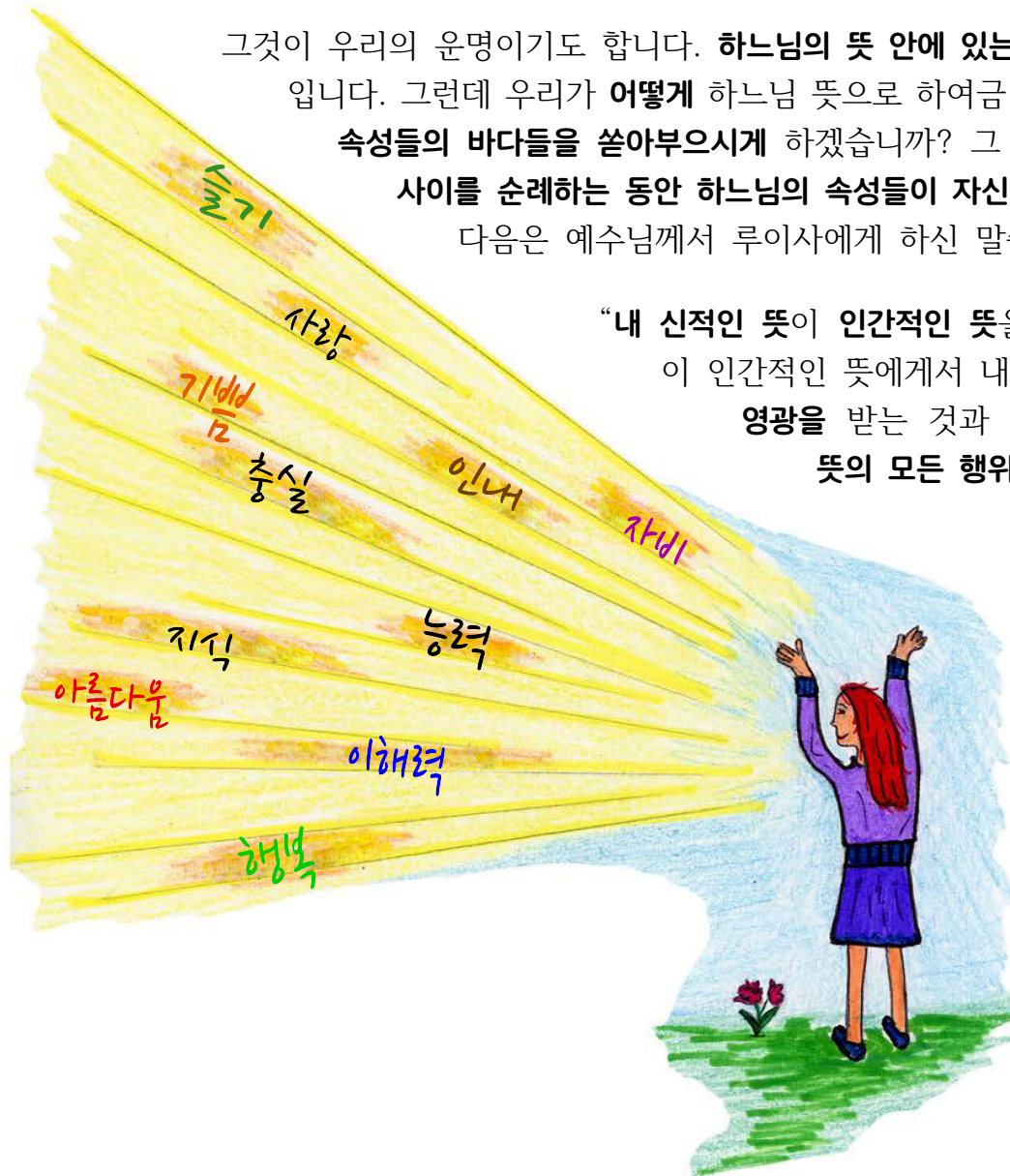
다음은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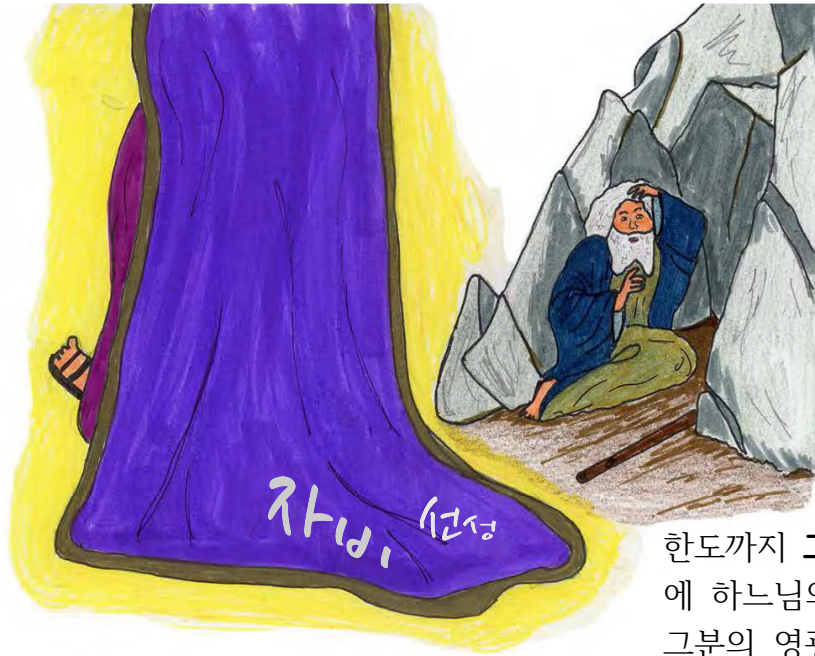
“**내 신적인 뜻이 인간적인 뜻을 내 뜻 자신과 내 뜻의 행위들 안으로 끌어당겨** 이 인간적인 뜻에게서 내 뜻 자신의 사랑과 흠숭과 영광으로 **사랑과 흠숭과 영광을** 받는 것과 같이, 오직 **내 뜻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내 뜻의 모든 행위들을 자기 자신 안으로 끌어당긴다.**……

요컨대 신적인 뜻은 자기의 거룩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만물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느님의 속성들을 그대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과 성화 사업 속을 계속 순례하십시오. 이들이 활동 중인 하느님의 속성들입니다.

그대가 이 지혜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신적인 활동들을 소유하면, 그때에는 하느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그대의 영혼 안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속성들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들이 그분의 영광인 까닭입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간청하자 하느님은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이루는 두 가지 속성만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선성과 자비**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느님의 영광을 훔쳐 보기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선물로 받았기에 하느님의 속성들이 (곧 그분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여서 그들의 속성이 바로 그들 자신이기도 합니다. **착한 천사들은 하느님의 능력, 정의, 사랑 및 다른 신적 속성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그런 속성들의 결핍**입니다. 그들의 영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느님의 속성들의 결핍된 곳을, 텅 빈 공터를 만들어 냅니다. 죄가 바로 그 빈 땅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속임수, 죽음, 증오, 타락, 추악함, 공포 및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악**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를 급습하려고 들면, 그때에는 이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그대 영혼의 ‘하느님 나라’ 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 대신 그것을 불 심연으로 보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쫓아내고, 죄와 악의 빈 땅을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모든 신적 속성들로 채우는** 일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루이사의 책들 속에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되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현동, 그분의 결의, 그분의 단일성, 그분의 속성들 — 바로 하느님이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선물**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과 완전히 비슷한 모습**이 되었고,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하느님 뜻의 집에** 와 있으니 매일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느님과 무엇을 함께할** 것입니까? 아마 이제껏 해 온 것과 같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또는 선교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도록 불릴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대의 삶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활을 하시는 동안 복음 선포와 치유 및 기적을 행하셨고 다른 특별한 활동도 많이 하셨지만, 그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순명이 그분의 임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마귀들을 쫓아내라고 하시면 마귀들을 쫓아내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복음을 전하셨고, 치유하라고 하시면 치유하셨고,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면 계속 나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기에 - **그대로 하셨을 뿐**입니다.

순명은 하느님 뜻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의 임무입니다. - **순간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일을 하라고 하시면 일을 하고, 말을 하라고 하시면 말을 하고, 들으라고 하시면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치유 활동**을 하라고 명하시면 그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치유가 하느님 계획의 일부라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대가 하기로 되어 있었던 일을 했으니,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떤 기적들은 상대방이나 다른 이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기적을 별로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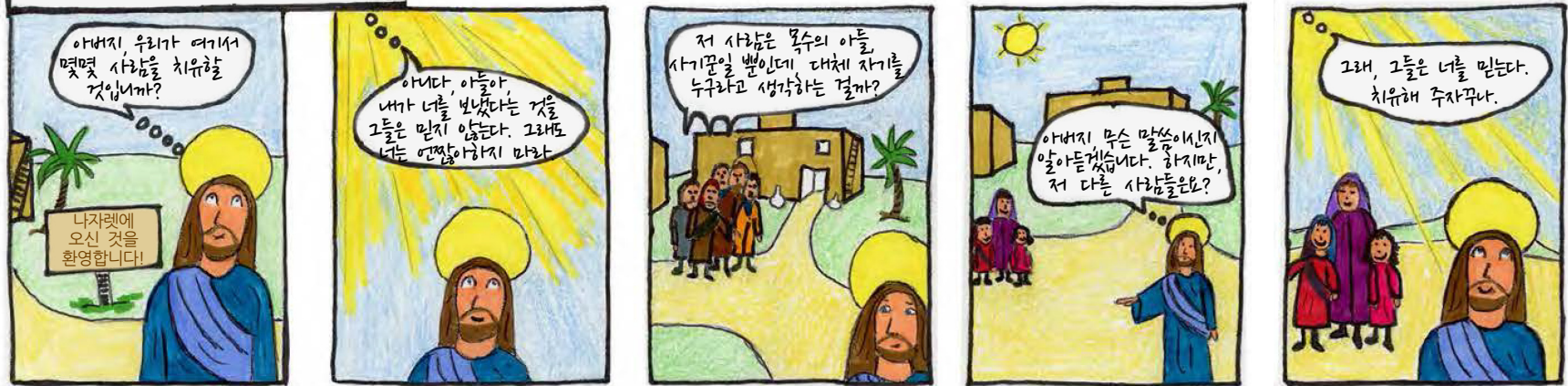
그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백십 프로 신뢰하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할 뿐이다.”** (요한 12,50 참조-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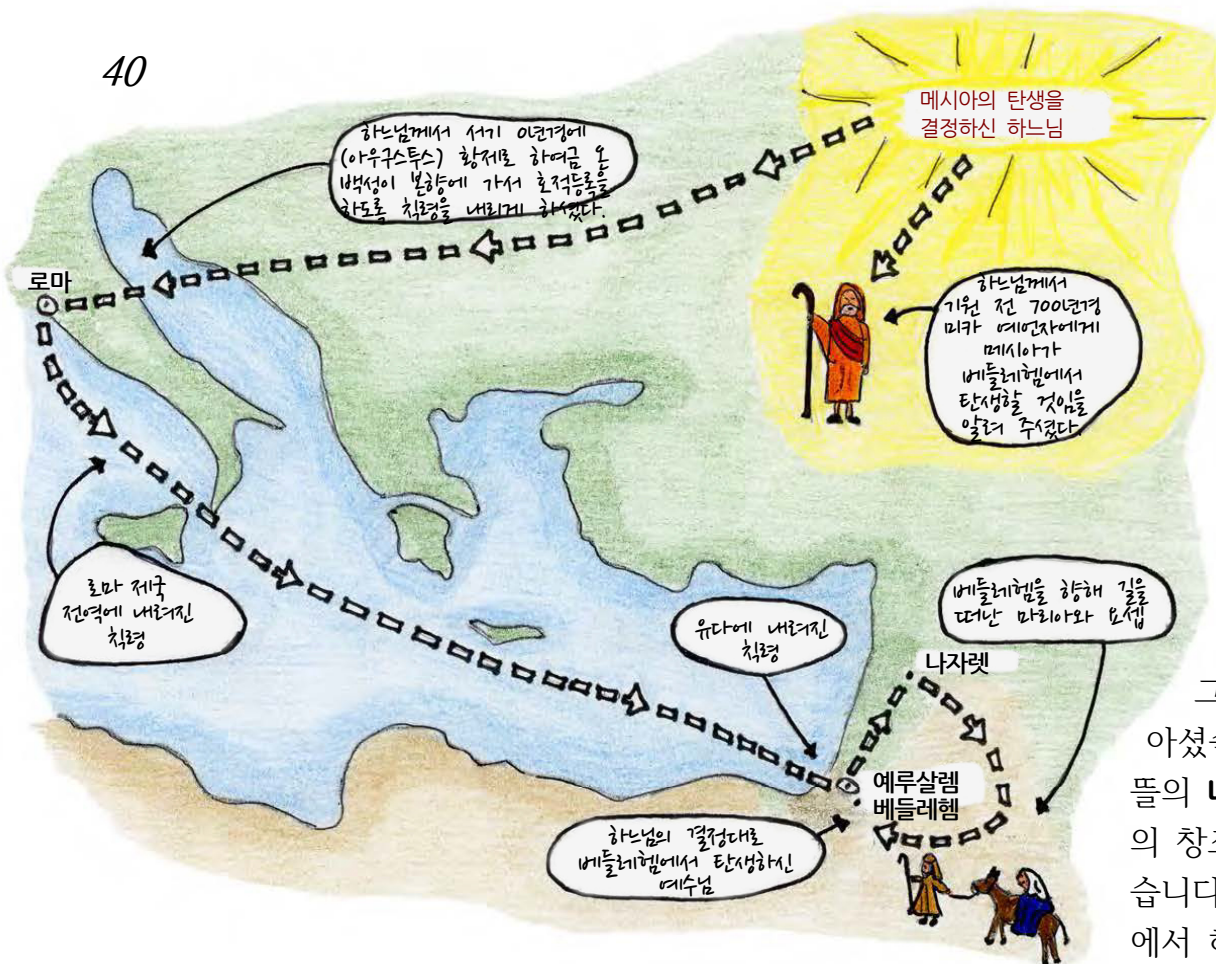
아버지, 다음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대가 하느님의 뜻 선물로 충만하면 어떤 능력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대 영혼 안의 옥좌를 차지하시고 모든 것을 그대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대가 하느님의 시력을 나누어 가지면, 하느님이 전부라는 진리를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갈수록 더 분명하게, 만인과 만물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볼 것입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완전히 그렇게 보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전부이며 죄는 (신적인 것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는) 빈 땅임을 아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을 보시면서 하늘이라는 그 베일 뒤에 하느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식사 중에는 그 음식을 보면서, 또 들의 나무들이나 먼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당신의 창조물 안에 은밀히 숨어 계신 하느님을 보셨습니다. 샘터로 가서 물을 길어 올릴 때도 그 물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보셨고, 물 길러 올리는 여인들 안

에서도 보셨고 ……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한평생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보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그분은 그것이 호적등록을 하라고 명령한 로마 지도자로 인한 사건이라기보다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의도에 맞게 안배하신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아드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도 그분은 그 수난의 배후에 하느님의 뜻이 있음을 아셨고,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은 하느님의 뜻이 허락하신 도구에 불과함을 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서는 그대의 삶 안에서 로마의 군사들이나 나귀를 타는 것에 (비할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느님의 뜻이 매 순간 활동**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그대를 공격할 때에도** 그들의 그런 행위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 뜻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나자렛에서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뜨리려 했지만, 그분은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하느님의 뜻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소망에 따라 행동하지 못

하도록 일정 기간 **유예**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자 그 유예는 철회되었으니,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나는 당신을 살릴 권한도 죽일 권한도 있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몹쓸 짓**을 했을 경우 그대가 그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하느님의 뜻이 이를 허락**하셨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대와 함께 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한다면, 그대가 참으로 하느님 뜻 안의 집에 와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되신 어머니처럼 우리 영혼의 눈으로 사물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꿰뚫어 보면서 **모든 것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떨기나무나 나귀나 불이나 사람이나 또는 어떤 부류의 조물이나 그 물리적 모습 너머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죽을죄 속에 있는 영혼들 안에는 **하느님의 생명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하느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그들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즐겁게 지내시는 대신 그들 안에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 곧 **예수님의 수난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가림막을 뚫고 들어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조물들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는 하시지 않는지를) 넌지시 알려 줍니다. 활동적이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현존 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뜻이 만물의 존재를 보존**하면서 그들의 **첫 활동에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죄, 곧 그분 속성의 빈 곳을 제외한) **모든 것이**십니다. 하느님의 속성들이 그분 영적인 '몸'의 지체들이듯이, **창조된 만물**은 하느님의 인성을 이룬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신적인 인성의 부분들이** 분명 병들어 있거나 **약화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저 빈 곳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들이 (곧 이 인성의 건강한 부분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삶에 따라 '사랑의 전쟁'이 그 빈 곳들을 채울 것입니다.

창조된
만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



은총 속에 있으나 인간적인 뜻으로 활동하는 영혼들

하느님은 그들 안에서 은총과 그들 인간적인 뜻의 협력에 의한 약간의 활동을 하신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수난 고통을 겪으신다.

죽을 죄(사죄) 중에 있는 영혼들

이 영혼들 안에 하느님은 계시지만, 그분의 신적 생명은 그들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첫 활동을 주신 것은 예외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수난 고통을 겪으신다.



죄

하느님의 속성이 빈 땅에 드러나고 있다.



연옥 영혼들

하느님은 당신 뜻에 따라 연옥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시지만, 그 영혼들에게서 그분의 현존체험을 박탈할 수 있다. 연옥의 수준에 따라 정도가 다양한 현존 체험이다.

정화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느님 뜻 선물의 완성에 다다른 영혼(집)

하느님은 하느님 안에 불가분적으로 완전히 녹아든 한 인성 안에서, 곧 그 거룩하신 현존의 또 하나의 센터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신다. 하느님은 그 영혼을 다스리시고, 영혼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하느님과 함께 활동한다.

천상에 있는 영혼들과 천사들
하느님은 충분히 활동하시고, 성인들은
지복직관을 누리는 초자연적 존재로서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한다.

불타는 떨기나무, 말을 하는 나귀,
불기둥 및 다른 기적들

창조된 만물은 (인간과 달리) 하느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간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자유로이 활동하신다.
하느님은 당신 뜻의 계획에 따라
자연적인 것을 넘어 초자연적인 것
안에서 활동하신다.

하느님 뜻 선물과 함께 출발하는
영혼들

하느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뜻의
협력에 따라 여기관계를 붙여나게
하며면서 그들 안에서 생동하고
말씀하시며 활동하실 수 있다.

떨기나무, 나귀, 불 및 나머지 모든 창조물

하느님께서 자유로이 활동하신다. 만물이 (인간과
달리) 하느님 뜻에서 떨어져 나간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모든 자연적인
것에는 당신의 활동을 제한하신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과 (악한)천사들

하느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당신 뜻에 따라 자유로이
활동하시지만, 이들에게서 당신의 현존과 속성들을
반환하신다. 영벌에 처해지도록 단죄된 자들은 지상에
있을 때 여기서 영원한 자들이니, 이 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놀라운 진리** 하나를 루이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느님께
서 어디든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 하느님의 뜻 안에 살면 하느님과 함
께 어디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하
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시
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대도 하느님처럼 모든 것 속에 번식합니다.
떨기나무와 나귀와 불과 사람과 다른 모든 것 안에 하
느님과 함께 그대의 수가 붙어납니다. 어떻게 모든 것
이 다른 모든 것 안에 꼭 들어맞을 수 있겠습니까?

루이사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에는 공간 문제란 것
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 안에 하느님과 그분
의 창조물이 거듭 거듭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어디든지 있다는 사실 - 이 진리의 중요한 일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뜻을 선물로 받았다면, 모든 영혼과 조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그들 안에서 활동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물 안에서 하는 그대의 이 활동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지식**과 함께, 또 그대가 하는 **각각의 거룩한 행위와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하여 그대는 **마지못해 동의하는 영혼들** 안에서도 친히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느님을 도와드립니다. **그대가 하는 하느님 뜻의 행위들에 의해 영혼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대 또한 영혼들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느님의 수난 고통을 덜어드리고, 하느님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그분을 마음껏 누립니다.

이 모든 활동이 결과적으로 영혼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죄인들에게 당황과 불안을 일으키고, 더할 수 없이 완악한 죄인들도 회개로 내몰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내면을 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대가 **하느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그분께서 그들 안에서 즐거워하기 시작하십니다.

비록 **영혼들이** 즉각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 **정복적인 행위**는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내리실 중대한 다른 조치들에 대해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여기에는 ‘**가라반달의 경고**’도 포함되는데, 이는 하느님의 뜻 선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그 ‘**경고**’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네 영혼을 보되 하느님께서 보시듯 볼 것**입니다.

범세계적인 그 **비추임의 순간**, 사람들은 자기들 영혼 안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들이 배치해 둔 **하느님 뜻에 대한 진리**들을 보는가 하면, **죄와 마귀들이 만들어 낸 빈 곳**들도 볼 것입니다. 이 마귀들은 그들이 신으로 받든 **거짓 신들**, 곧 **세속적인 것들에 붙어 있는 마귀들**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 안에 쉬기까지 쉽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의 매 행위는 더욱더 들떠 있기 마련입니다. 때가 차서 ‘**나라**’의 **도래가 가까워짐**에 따라,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영혼 안에 더 크게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참된 본성은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한 처소**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원래부터 죄로 인한 빈 곳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전쟁**’으로 인해 영혼들은 더 이상 자기네의 실상을 부정할 수 없어 집니다.

더 이상 죄스러운 세속적 생활 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께 응답**해야 합니다.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영혼들 속의 문을 여는 이들입니다.**



‘사랑의 전쟁’의 그 일면과 또 다른 면들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뜻** 선물이 ‘**하느님의 나라**’로 안내하는 **비밀 무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제각기 삼위일체 하느님이 즐기시는 아주 **멋진 동산**이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동산은 하느님께서 **옥좌**에 앉아 계시고 **자녀들**과 나머지 조물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에덴동산**입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하느님의 모든 지상 거처**들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체조차**도 그분의 궁극적인 거처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생각해 오신 **살아 있는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성전이 영혼들 안에 건설될 때**, ‘하느님의 나라’가 창조된 만물 위에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천국의 충만함**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상 옥좌
만남의 장막 안에 있는 지성소
기원 전 1450년에서 957년까지



하느님의 지상 옥좌
기원 전 957년에서 기원 후 33년까지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 내부의 지성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하느님은
이 지성소를 버리셨다. — 찢어진 성전 휘장)

하느님의 완전한 지상 옥좌
마리아- 기원 전 15년에서
기원 후 48년까지



하느님의 지상 감실
하느님 뜻 선물과 함께
살아가는 영혼
지난 1800년대부터
현재까지



하느님의 지상 옥좌
성체-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33년경부터 현재까지

하느님의 지상 옥좌
루이사-
(하느님 뜻 선물을 받은)
1892년부터 1947년까지



‘사랑의 전쟁’을 하는 동안 그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느님의 뜻을 주목**하십시오. 특히 우리 시대에는 사실 세상이 우리 주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 루이사가 환시에서 본 그대로 - ‘다리를 하늘로 치켜올리고’ 머리를 ‘땅에 댄’ 채 ‘거꾸로 선 자세로’ 걸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세상의 모든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피다 보면, 정신이 마비 상태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그 무엇도 그녀의 **평화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이** 그녀 안에서 **활동**하실 수 없고 **가르침**을 주실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뉴스에서** 눈길을 돌리고, **신문들을 던져 버리십시오.** 피비린내 나는 **최근 뉴스의 세세한 내용**까지 그대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불평분자들, 험담을 늘어놓는 자들, 전쟁 도발자들을 피하는 대신,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과 그대 안에서 하시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이는 세상이 주는 권고와는 정반대로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박식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그대는 과연 **세상의 말을** 들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동, 갈등, 범죄, 테러, 정치 및 다른 세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기를 원하지만, **하느님의 승전 계획**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위험한 선택**입니다.

성 바오로는 바르게 처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박해 한가운데서도 “**선한 것,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등을 생각**하십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권고했으니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느님을 생각**하십시오.”이고, 이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땅 위 저 높은 곳에서 살며 아래를 굽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마다** 모든 피조물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는 영혼들 안에서 **하느님 뜻에 대한 또 다른 진리**를 볼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선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세계 국가**라는 무리가 꾸미는 또 다른 음모의 구체적인 내용도 그대가 볼 것입니다.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 (그러나 곧 평화를 위해) 내려올 모든 것에 대해 **가장 잘 준비**하는 길은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 안의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르려면 그대가 **사랑이 되어야** 하고, 주변의 **대혼란**이 그대 안에 가득 스며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내 인성은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에** 매달려 살았다. 온 땅을 내 아래 두고 온 하늘을 내 위에 둔 채.…… 나는 그래서 **나의 모상**이 되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내 인성이 처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있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지주**이다. 나 자신의 팔이 너를 지탱한다. 내가 너를 안아 **공중에 매달고 내 팔 안에서 살게** 하므로 가장 긴요한 것만 네게 닿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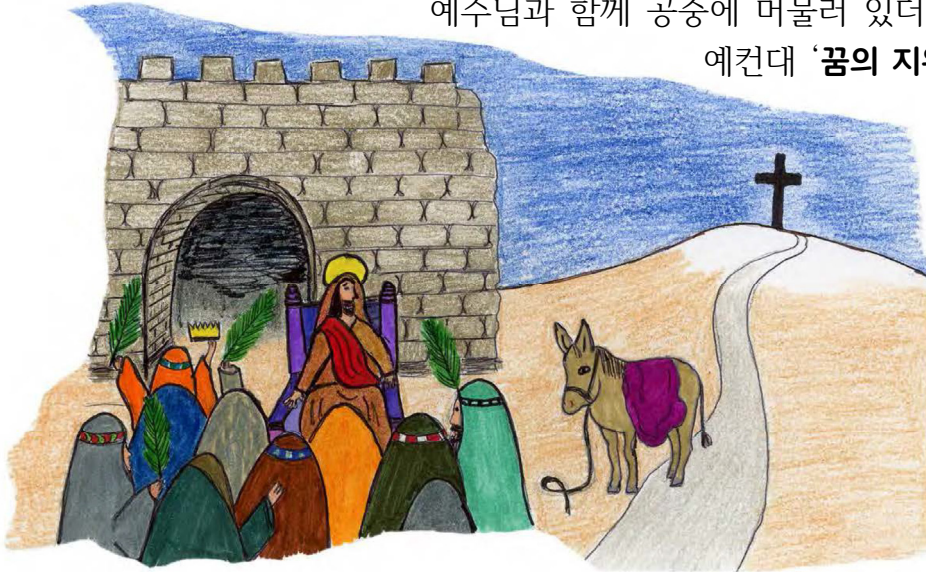
모든 사람에게서 벗어나 온전히 나를 위해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천박한 것이고, 그의 고상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어쩌다 **인간적인 의젓거리**가 주어지면, 그는 인간적인 것의 악취를 맡고 멀리 치워 버리기 마련이다.”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머무는 것 -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천박한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데 **천박한 것**이란 정확히 무엇이겠습니까? **이름난 사람**에 대한 숭배 충동, **최신 유행**의 의상을 입는 것,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그리고 **‘완벽한’ 몸매**를 가지기 위해 극단적인 처신을 하는 것도 분명히 이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대가 공중에서 살면 그런 것들을 쉽사리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민감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머물러 있더라도 그런 것들의 **인간적인 악취** 역시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꿈의 지위’**가 제공된다고 해도 그 지위가 그대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속하지 않는다면 천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대’는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천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군중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대신, 이 **‘꿈의 지위’**를 택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일**은 하느님의 뜻 선물에 대해 **배우기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대한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하느님께 질문도 계속하십시오. ‘사랑의 전쟁’을 통해 그대가 **하느님에 대해 배우는 진리**는 저마다 만인과 만물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서 그대 자신의 **영혼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무르익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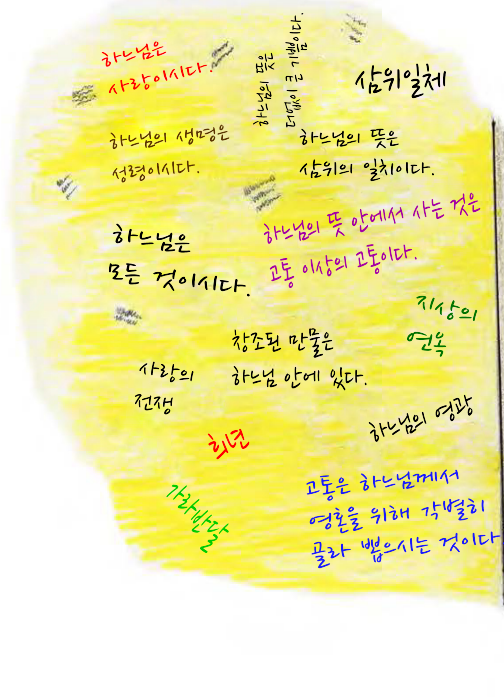
“사람을 내 ‘**거룩한 피앗**’의 빛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길은 바로 내 거룩한 뜻에 대한 지식이다. 그 지식이 씨앗이고, 이 씨앗이 피조물 안에 태어나는 내 ‘**거룩한 피앗**’의 생명의 시작이다. 각각의 지식이 여러 모금의 생명을 마시는 것 같아서 피조물 안에 그 ‘**신적인 생명**’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그 지식들은 영혼들(의 품성)을 도야하면서 **인간적인 뜻의 악한 불을 꺼 버리기도** 한다…… 내가 너에게 내 거룩한 뜻에 대한 지식을 그토록 많이 일러준 것은 결코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니고말고! 그것은 이 뜻에 대한 **지식을 먼저 네 안에 형성한 다음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도 형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이 ‘**신적이고 온전히 천상적인 지식**’이 **알려지고**, 그것이 ‘거룩한 피앗의 생명’을 **성숙시켜 ‘피앗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비록 그대가 하루에 한 구절을 읽거나 또는 그분들에게 직접 배우거나 하여 **매일 새로운 진리를** 하나만 **배워** 익힐지라도, 그것이 그대에게는 **성숙의 정도를 한 단계 더 높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한 걸음 더 ‘**하느님 뜻의 나라**’에 **다가가게** 합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감춰져 있었던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 안에 삶으로써** 하느님 뜻과의 계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느님의 감각 능력**을 얻는다. 먼 데를 볼 수 있는 **시력**을 얻고, 매우 날카롭고 투철한 빛으로 스스로를 하느님 안에 정착시킬뿐더러 이 하느님 안에서 그 **거룩하신 신비를 꿰뚫어 볼 수 있다.**”





루이사가 자기의 책 제36권의 마지막 구절을 쓰기 38년 전, 예수님께서 그녀를 데려가실 극히 높은 경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 안에서 무로 돌아간 영혼은 완성의 단계가 극히 높아서 마치 **하느님처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영혼 안에 그 자신의 뜻은 이제 살아 있지 않고 **하느님 자신의 뜻만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하느님의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 및 그분 소유의 다른 모든 **덕행들을 지니게** 된다고 해도 놀라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너로 하여금 그런 완성에 도달하기를 열망하게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마음이 들게 하려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넉넉하리라. 즉, **오로지 나의 뜻으로만 사는 경지에** 도달한 영혼은 모든 **여왕들 중의 여왕**이다.

그의 옥좌는 아주 높은 곳에 있기에 **영원하신 분의 옥좌**에까지 이른다. 그는 지극히 영화로우신 **삼위일체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나누시는 사랑에 참여**한다. 이 영혼 안에 거룩하신 분께서 계심을 알아보면, **모든 천사와 성인들은** 얼마나 그를 공경하겠느냐! 사람들은 얼마나 탄복하고, **마귀들은** 또 얼마나 무서워하겠느냐!”

이에 대하여 루이사는 예수님께 즉시 이렇게 응답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응답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언제 저를 그러한 경지에 다다르게 해 주시겠습니까?**”

실은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 안의 집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맨 첫째로**, 이 선물에 대한 지식을 모으지만 말고 **그대가 배운 진리들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그대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협력’하십시오.

유다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보내 주십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로부터 마침내 그 대망의 약속 성취를 확보한 것은 복되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일이 실현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2천 년 동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기를 간청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리아께서 메시아를 보내 주십사고 아버지께 간청하셨던 때와 같이 **세계 역사상 결정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라가 그분의 **천상적인 약속이 하루 속히 지상에 내리게 해 주시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의 사슬**로 아버지의 의노를 가시게 하고, 그분께서 마리아께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내 거룩한 뜻의 자녀들아, 누가 너희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 내가 졌다! **이제 하느님의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느님과 협상할 수 있는 그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이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 우리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가 **우리 자신도 지배하게** 하였다…… 오!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그를 이기게 했던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자신 대신에 **피조물 안에 있는 우리의 뜻이 승리를 거두게** 하곤 하였다.”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 안의 집으로 가는 이 여정의 어디쯤 그대가 와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 다른 이들과 함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라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희 모두가 마땅히 저희 임금님의 영광스러운 **돌아오심을 준비**하오니,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그때입니다!”





점 검 표



♥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네 가지 표

- ☒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
- ☒ 자기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 ☒ 자기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 ☒ 자기가 이미 받은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주어지는 네 가지 선물



- ☒ 기도의 선물 : 그 영혼의 기도는 **보편적**인 것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만물이 함께할 정도로 **큰 능력**을 펼친다. 하나님의 속성들도 함께하신다.
- ☒ 사랑의 선물 : 새로운 사랑, **한결같이 성장**하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한다.
- ☒ 불거분의 선물 : 영혼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 **깊이** 느낄 정도에 이르게 된다.
- ☒ 승리의 선물 : 모든 것을 이기도록 만들어진 영혼이어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긴다. 이 영혼 안에서는 **일체가 승리**이다. - 은 총의 승리, 성덕의 승리, 사랑의 승리이다.

하나님의 뜻 반석



3쪽

제28권: 1930년 4월 1일 (하느님 뜻 안의 행위를 많이 할수록 신적 생명의 성장이 그만큼 더 빨라진다) **제36권:** 1938년 12월 5일 (하느님의 생명이 형성될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 피조물) **제16권:** 1923년 11월 10일 (하느님의 뜻 선물은 영혼이 상실한 고귀성을 돌려준다) **제4권:** 1901년 2월 17일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니 하느님에게 돌아가야 한다) **제26권:** 1929년 5월 16일 (아담에게 하셨을 말씀을 루이사에게 하신 예수님)

4쪽

제32권: 1933년 3월 19일 (하느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성장함) **제32권:** 1933년 4월 29일 (왕녀의 신분에서 유배자로) **제32권:** 1933년 9월 17일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 **제12권:** 1921년 2월 22일 (하느님의 성화 사업을 완성할 '피앗') **제29권:** 1931년 8월 10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의 아름다움)

7쪽

제33권: 1935년 5월 14일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는 곳에서 그분의 신성을 느끼는 피조물) **제33권:** 1935년 3월 10일 (하느님의 뜻이 비어 있는 곳을 채우기 위한 지상 연옥의 필요성) **제33권:** 1935년 11월 5일 (하느님 뜻이 다스리시는 내면에는 또 다른 예수님이 자라실 수 있다) **제36권:** 1938년 7월 18일 (하느님 뜻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영혼) **제36권:** 1938년 7월 6일 (옥좌에서 영혼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느님의 뜻)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의 낙원) **제36권:** 1938년 4월 25일 (영혼을 다스리며 지배하시는 하느님의 뜻) **제6권:** 1905년 10월 10일 (고통 중에 미소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고통을 받으시지 않게 할 수 있다.)

8쪽

제29권: 1931년 4월 2일 (인용된 부분) 『... 수난의 시간들』: 제17시간 43-45 참조 **제29권:** 1931년 10월 8일 (신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만이 흠 없고 정연하며 완전한 행위로 드높여진다) **제6권:** 1905년 3월 16일 (진정한 말김은 하느님 섭리의 안배를 받드는 것) **제6권:** 1905년 4월 9일 (완전한 말김의 행위 하나만으로도 그 영혼을 온전히 정화시킬 수 있다) **제8권:** 1908년 2월 16일 (고통에 대한 인내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다)

9쪽

제7권: 1906년 10월 2일 (인용된 부분) **제33권:** 1935년 9월 28일 (영혼들 안에서 겪으시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위로)

10쪽

제6권: 1904년 5월 28일 (인용된 부분)

11쪽

제6권: 1904년 3월 16일 (인용된 부분) **제36권:** 1938년 10월 30일 (새로운 에스테르) **제8권:** 1908년 2월 7일 (보석으로 바뀌는 삶의 무게) **제6권:** 1905년 2월 10일 (모든 만족 중에서 가장 큰 <만족인> 고통) **제9권:** 1909년 4월 1일 (신부를 위해 골라 뽑은 고통인 <십자가>)

12쪽

제32권: 1933년 10월 15일 (인용된 부분) **제11권:** 1913년 9월 20일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고통을 능가하는 삶이다) **제8권:** 1908년 5월 3일 (미리 아름답게 꾸미는 하느님의 뜻) **제7권:** 1907년 1월 5일 (지상 적이라기보다 천상적인 삶) **제33권:** 1934년 5월 6일 (추락 이후의 속량에 관한 신학) **제33권:** 1935년 5월 31일 ('속량'과 '나라'의 일치) **제28권:** 1930년 9월 26일 (추락 이전의 행복과 <가족> 관계) **제32권:** 1933년 9

월 10일 (구속 사업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복원을 위해서도 강생하신 예수님) **제32권:** 1933년 9월 24일 (우리를 다시 만들고 당신의 형제로 복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제32권:** 1933년 3월 19일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원안<原案>이었던 아담)

13쪽

제15권: 1923년 5월 18일 (인용된 부분)

14쪽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 안에서의 참된 변화와 완성) **제8권:** 1907년 11월 18일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갈수록 전부이신 분으로 충만해지는 인간) **제7권:** 1906년 10월 14일 (모든 것이신 분으로 충만하려면 모든 것을 비워야 한다) **제12권:** 1917년 7월 15일 (하느님이 가득한 영혼) **제6권:** 1905년 5월 23일 (아무것도 아닌 것과 모든 것이신 분의 결합) **제11권:** 1912년 8월 14일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날처럼 시작할 일이다) **제3권:** 1900년 8월 3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 **제34권:** 1936년 8월 23일 (예수님의 인성 안에 숨어 있는 온 인류)

15쪽

제33권: 1935년 6월 17일 (하느님이 인간의 뜻 안으로 내려와

활동하시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큰 기적이다) **제8권**: 1907년 11월 18일 (영혼은 텅 빈 무가 되어갈수록 전부이신 분으로 더 차게 된다) **제7권**: 1906년 10월 14일 (하느님으로 가득 차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울 필요가 있다) **제6권**: 1905년 5월 23일 (아무것도 아닌 존재 <곧 인간>은 모든 것이신 분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제11권**: 1912년 11월 1일 (너 자신 생각 일랑은 하지마라) **제16권**: 1923년 11월 10일 (늘 작은 사람 안에서 지극히 큰 일을 하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9월 5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인간의 작음) **제34권**: 1936년 7월 4일 (하느님의 뜻 선물이 없는 영혼 안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길러지지 않는다)

..... **16쪽**

제32권: 1933년 3월 26일 (하느님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제28권**: 1930년 3월 5일 (하느님과의 일치 안으로 다시 불리고 있는 만물) **제28권**: 1930년 2월 26일 (하느님 뜻 안에서는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하는 구분이 없다) **제28권**: 1930년 4월 23일 (창조되었으나 하느님의 속성들에서 따로 분리되지 않은 인간) **제36권**: 1938년 4월 25일 (자신의 무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느님을 감지하는 영혼) **제30권**: 1932년 2월 10일 (인간적인 것을 비우고 무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신 분으로 채워진다) **제32권**: 1933년 4월 23일 (영혼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면,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그에게 주신다) **제**

32권: 1933년 5월 14일 (<하느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제32권**: 1933년 6월 29일 (인간의 작음에 적응하시는 하느님) **제33권**: 1935년 4월 12일 (무로 돌아간 사람의 그 무 안에 당신 생명을 기르시는 하느님) **제33권**: 1935년 6월 10일 (모든 것을 드리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7월 18일 (거룩하신 분을 받아들여, 존재 안팎에 그분을 옷 입듯이 입는 영혼) **제36권**: 1938년 7월 11일 (나의 것은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 **제16권**: 1923년 10월 16일 (현재까지 성덕의 길에 있었던 모든 이들의 내적 상태를 루이사 안에 집중시키고자 하신 예수님) **제36권**: 1938년 9월 5일 (인간의 작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는 그 거룩하신 분의 능력을 얻어 가진다)

..... **17쪽**

제28권: 1930년 4월 18일 (하느님의 기쁨 및 대화의 대상이었던 사람) **제32권**: 1933년 4월 29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제32권**: 1933년 3월 12일 (무로 돌아가, 항구한 동반으로 하느님을 누리는 사람) **제33권**: 1934년 10월 7일 (하느님과 피조물의 상호 사랑) **제36권**: 1938년 4월 25일 (아무것도 아닌 무는 영혼 안에 하느님 뜻의 완전한 다스림을 초래한다) **제32권**: 1933년 6월 25일 (하느님의 중심 안에 있는 피조물) **제32권**: 1933년 7월 8일 (온통 하느님으로 채워진 완전한 행위) **제36권**: 1938년 7월 18일 (하느님 뜻 안

에 있는 피조물을 보며 즐거워하는 거룩하신 분) **제36권**: 1938년 7월 30일 (하느님 뜻 안에서 살지 않고 그 뜻을 행하기만 하는 자는 결코 집에 도착하지 못하는 <도보 여행자>와 같다) **제12권**: 1919년 2월 24일 (창조주와 ‘작은 신’인 피조물 사이의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 **제36권**: 1938년 8월 21일 (예수님의 지체인 피조물과 인간)

..... **18쪽**

제36권: 1938년 4월 12일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적 청각을 받은 영혼) **제32권**: 1933년 9월 2일 (계속적이고 필수적인 하느님과의 언어적 소통) **제33권**: 1935년 6월 6일 (창조된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뜻) **제36권**: 1938년 7월 11일 (열린 커뮤니케이션)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 뜻 안에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제1권**: 191~195쪽 (하느님께서 주신 네 가지 생활 수칙에 대한 루이스의 설명)

..... **19쪽**

제36권: 1938년 11월 30일 (집에서 하느님과 한 가족이 되어) **제36권**: 1938년 11월 6일 (하느님과 영혼이 이루는 공동체) **제36권**: 1938년 7월 18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피조물을 보며 즐거워하는 거룩하신 분) **제36권**: 1938년 7월 30일 (인간 자신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결코 집에 도착할 수 없다.)

..... **20쪽**

제36권: 1938년 7월 6일 (영혼과 하느님 뜻이 서로를 기쁘게 하며 끊임없이 이어가는 대화) **제6권**: 1905년 2월 10일 (홀로 하느님만이 우리의 행복이다) **제36권**: 1938년 8월 21일 (하느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가장 큰 즐거움은 동반자가 있는 것이다.)

..... **21쪽**

제32권: 1933년 7월 8일 (불가분적인 하느님과의 유대) **제32권**: 1933년 9월 10일 (하나하나의 행위로 갈수록 커지는 하느님과의 친교) **제36권**: 1938년 8월 6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에게 다른 영혼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시다) **제36권**: 1938년 11월 30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제36권**: 1936년 11월 30일 (피조물이 다다를 수 있는,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깊이) **제34권**: 1936년 11월 3일 (하느님 뜻이 이루려는 목적: 상호 향유)

..... **22쪽**

제32권: 1933년 3월 26일 (영혼 생명을 뒤덮은 재를 날려 버리는 강풍) **제33권**: 1935년 5월 31일 (하느님의 거처에 개선하는 거룩하신 뜻) **제28권**: 1930년 3월 5일 (모든 영혼들 안에 반영되는 하느님의 행위들) **제28권**: 1930년 3월 5일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지는 우리의 행위들) **제36권**: 1938년 4월 25일 (모든 영혼이 하느님께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하게 하는 영혼) **제36권**: 1938년 4월 15일 (자기가 행하는 것을 모든 영혼이 행하게 하는 영혼. 자기들 안에서 활동하는 그 영혼을 느끼는 모든 영혼) **제36권**: 1938년 4월 12일 (자신의 행위로 만물이 하느님께 ‘사랑합니다.’ 하게 하는 영혼) **제32권**: 1933년 6월 29일 (만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느님) **제33권**: 1934년 5월 20일 (만물 안에 느껴지는 하느님의 행위) **제33권**: 1934년 6월 24일 (두 장소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진리) **제33권**: 1934년 10월 7일 (‘사랑의 전쟁’에서 모든 지성의 생각이 되는 영혼) **제36권**: 1938년 7월 18일 (창조된 만물 안에 ‘사랑합니다.’를 넣는 영혼) **제36권**: 1938년 7월 6일 (모든 피조물 안에 울리는 사랑과 영광의 메아리) **제36권**: 1938년 7월 30일 (자기 자신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모든 이를 찾아가는 영혼) **제36권**: 1938년 8월 6일 (각기 다른 영혼에게 각기 다른 효과를 내는 ‘사랑의 전쟁’ 행위들) **제36권**: 1938년 11월 6일 (모든 것이 포함된 행위) **제16권**: 1923년 9월 6일 (모두를 위한 하느님 사랑) **제34권**: 1937년 3월 22일 (영혼이 모든 사람에서부터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까닭)

.... **23쪽**

제12권: 1921년 4월 26일 (인용된 부분) **제32권**: 1933년 7월

17일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안팎으로 끊임없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 **제33권**: 1935년 11월 17일 (안식이 없는 행위는 없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7월 30일 (예수님의 고통 안에 있는 창조력이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그분을 사랑하게 한다) **제36권**: 1938년 8월 6일 (승리를 위하여 6천년 동안 기다리신 하느님)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모든 사람을 전부이신 분 안으로 데려오고, 전부이신 분을 모든 사람 안으로 모셔 오는 놀라운 기술) **제36권**: 1938년 8월 15일 (도처로 확장된 하느님의 생명과 행적에 의해, 모든 피조물 안에서 사랑과 영광을 받고 있음을 느끼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8월 21일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에 참여해야 한다.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 안에 내포된 하느님과 피조물)

.... **24쪽**

제28권: 1930년 3월 12일 (인간의 행위를 하느님의 행위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제28권**: 1930년 4월 18일 (행위들의 저장고) **제32권**: 1933년 8월 13일 (언제나 새로운 행위들을 하면서 매 순간 인간의 행위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뜻) **제32권**: 1933년 9월 2일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가 신적인 행위로 되도록 기다리는 파수꾼이신 예수님) **제36권**: 1938년 8월 6일 (행위마다 그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소유한 영혼) **제36권**: 1938년 11월 20일 (하느님의 행위들에 내포된 영광) **제36권**: 1938년 8월 6일 (승리를 위해 6천 년을 기다리신 하느님) **제28권**: 1930년

8월 24일 (아담 안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 **제28권**: 1930년 4월 18일 (모든 첫 행위를 아담 안에서 하신 하느님) **제27권**: 1929년 12월 25일 (우리에게 행위들을 주시는 예수님) **제26권**: 1929년 5월 25일 (아담의 행위들에 매달려 있는 모든 세대들)

..... **25쪽**

제12권: 1919년 5월 16일 (인용된 부분) **제36권**: 1938년 12월 28일 (반복되어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하느님 뜻 안의 행위) **제32권**: 1933년 6월 4일 (하느님 뜻 안의 행위는 제각각 하느님의 생명을 내포한다) **제29권**: 1931년 10월 12일 (가득 찬 행위는 가장 큰 영광이다) **제36권**: 1938년 8월 21일 (사람에게 한 번 더 숨을 불어넣으시고 원수를 쫓아내실 하느님)

..... **26쪽**

사도행전: 2장 2~4절 (인용된 부분) **제33권**: 1935년 7월 14일 (영혼들을 휩쓰는 바람)

..... **27쪽**

제11권: 1912년 3월 15일 (인용된 부분) **제32권**: 1933년 3월 26일 (죄악과 욕정을 달아나게 하는 바람) **제32권**: 1933년 5월 25일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기적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제34권**: 1937년 3월 14일 (하느님의 각 행위는 저마다 하느님의 생명이다.)

..... **28쪽**

제32권: 1933년 5월 25일 (인용된 부분) **제29권**: 1930년 3월 5일 (인간의 행위를 신적 행위의 기적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제32권**: 1933년 5월 7일 (피조물의 행위 안에서 자신의 행위를 봉헌하시는 하느님의 뜻) **제33권**: 1935년 10월 27일 (신적 행위로 바뀌면서 불어나는 인간 행위) **제36권**: 1938년 8월 6일 (인간 행위의 완성을 위해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온 존재를 내주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11월 6일 (모든 것이 포함된 신적 행위) **제36권**: 1938년 6월 26일 (피조물의 행위 안에 자신의 생명을 쏟아붓는 하느님의 뜻) **제28권**: 1930년 9월 20일 (행위들에 대한 하느님 뜻의 관리자 예수님) **제36권**: 1938년 8월 21일 (예수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가리는 베일인 성체) **제34권**: 1936년 11월 3일 (이미 행해진 행위도 변화시키는 거룩하신 뜻) **제34권**: 1936년 5월 20일 (인간적 행위를 벗어, 신적 행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영혼)

..... **29쪽**

제16권: 1923년 7월 24일 (하느님 뜻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전 존재를 소유한다) **제16권**: 1923년 9월 6일 (예수님의

거처가 되는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 **제16권**: 1923년 10월 16일 (성체처럼 예수님을 덮어 가리는 얇은 베일이 되는 영혼) **제16권**: 1923년 11월 5일 (영혼 안에 당신의 신비적인 생명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사 생명을 이루시는 예수님) **제16권**: 1923년 10월 30일 (영혼의 신화) **제2권**: 1899년 4월 12일 (예수님의 살아 있는 감실) **제32권**: 1933년 10월 15일 (피조물 안의 모든 것을 낙원으로 변모시키는 것)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 안에서의 피조물의 참된 변화와 완성) **제34권**: 1937년 1월 1일 (사랑으로 변화되고 굳건해진 영혼)

..... **30쪽**

제36권: 1938년 4월 15일 (하느님의 뜻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하느님의 신성과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다) **제32권**: 1933년 6월 4일 (제각기 하느님의 생명을 내포하는 행위) **제32권**: 1933년 6월 25일 (새로운 센터에 자리하신 하느님) **제33권**: 1935년 9월 28일 (중요한 모든 것은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다) **제36권**: 1938년 7월 18일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태어나 지속되는, 영혼에 대한 사랑) **제36권**: 1938년 7월 11일 (영혼 안에 <또 하나의> 센터를 세우신 하느님의 뜻) **제36권**: 1938년 7월 30일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의 거처인 센터 - 거룩한 방) **제36권**: 1938년 11월 30일 (피조물 안에 <생성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 **제11권**: 1914년 3월 17일 (하느님의 내적 활동과 외적

활동에 참여하는 영혼들) **제11권**: 1914년 6월 29일 (성삼위 하느님의 내적 활동에 참여하는 영혼)

..... **31쪽**

『하느님 뜻의 나라의 동정 마리아』: (인용된 부분: 위에서부터 차례로) 제19일 12절, 제18일 17절, 제11일 10절 **제6권**: 1904년 4월 16일 (루이사의 간청으로 열 개의 징벌을 다섯으로 줄여 주신 하느님) **제28권**: 1930년 3월 9일 (예수님께 ‘나라’의 도래를 간청하는 루이사) **제36권**: 1938년 4월 12일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영혼의 어떤 청을 즉각 들어주신 예수님) **제36권**: 1938년 8월 6일 (지극히 높으신 분 안에서 말을 하는 영혼) **제11권**: 1914년 6월 29일 (성삼위 하느님의 내적 활동에 참여하는 영혼) **제36권**: 1938년 10월 2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의 회의와 결정)

..... **32쪽**

제28권: 1930년 11월 30일 (우리와 우리의 행위 안에 계신 하느님. 모든 것이지만 오직 하나인 하느님 뜻) **제36권**: 1938년 5월 6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들과 삼위일체 하느님의 불가분적 관계) **제32권**: 1933년 4월 23일 (영혼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느님은 그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다) **제32권**: 1933년 6월 29일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 하느님) **제32권**: 1933년 7월 8일 (하느님과의 나눌 수 없는 유대 관계) **제**

32권: 1933년 8월 20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모든 것 안에 들어가며 모든 곳에 있다.) 제33권: 1935년 5월 26일 (하느님의 모든 업적 안에 있는 영혼과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든 업적) 제33권: 1935년 5월 31일 (함께 각각의 일을 하는 하느님과 영혼) 제33권: 1935년 6월 10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받는 영혼) 제33권: 1934년 9월 24일 (만사를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혼) 제33권: 1934년 10월 7일 (하느님의 활동을 하는 영혼과 영혼의 활동을 하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7월 18일 (창조된 만물 안에서 사람이 동반해 주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8월 6일 (하느님과 영혼의 영원한 결합)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신성의 비밀들이 드러난 것은, 하느님 뜻은 하느님 자신에게서 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36권: 1938년 10월 30일 (모든 활동을 함께하는 하느님과 영혼) 제16권: 1923년 10월 30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을 떠나려면 당신 자신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제11권: 1914년 3월 17일 (하느님의 내적 행위와 외적 행위에 참여하는 영혼들) 제11권: 1914년 6월 29일 (성삼위 하느님의 내적 활동에 참여하는 영혼) 제36권: 1938년 8월 21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느님과 영혼) 제36권: 1938년 9월 5일 (하느님은 매사를 영혼과 함께하시기에 당신의 거룩한 활동 안에서도 영혼을 느끼신다) 제36권: 1938년 9월 11일 (서로의 활동 속으로 뻗어나가는 하느님과 영혼) 제34권: 1936년 11월 3일 (영혼 안의 활동들의 불가분성과 영향)

.... 33쪽

제28권: 1930년 11월 30일 (인간 내부에서 질식된 속성들) 제36권: 1938년 5월 6일 (하느님의 속성들에 독특하게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던 피조물) 제32권: 1933년 9월 17일 (하느님의 속성들이 그분의 지체들이라면 하느님의 뜻은 엔진이다) 제32권: 1933년 9월 17일 (하느님의 지체들인 그분의 속성들) 제33권: 1934년 8월 5일 (당신의 속성들을 사람과 나누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7월 18일 (하느님의 속성들을 얻는 영혼들) 제36권: 1938년 7월 30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하느님의 모든 재산을 소유한다) 제12권: 1919년 2월 24일 (사람 안의 신적 특성은 모든 피조물을 능가한다) 제32권: 1933년 4월 9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을 에워싼 신적 속성들) 제28권: 1930년 5월 20일 (만물은 하느님의 지체로서 그분의 속성에 참여한다) 제36권: 1938년 8월 21일 (사랑과 지혜와 아름다움의 바다들과 더불어 피조물을 뒤덮는 하느님의 생명)

.... 34쪽

『하느님 뜻의 나라의 동정 마리아』: 제7일 7~8절 (인용된 부분) 제28권: 1930년 11월 30일 (인용된 부분) 제32권: 1933년 10월 15일 (영혼의 본성으로 바뀌는 하느님의 선들) 제36권: 1938년 7월 5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변모된다)

..... 35쪽

제28권: 1930년 11월 30일 (인용된 부분) **제28권:** 1930년 4월 23일 (하느님의 속성과 뜻이 주어진 영혼) **제28권:** 1930년 11월 30일 (우리가 하느님의 단일 행위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하신 뜻이 우리 안에 창조된 하늘과 같은 하늘을 펼치신다) **제28권:** 1930년 12월 21일 (하느님의 뜻은 이를 원하는 사람의 생각과 행위 등등 안에 당신 자신을 펼치신다) **제36권:** 1938년 7월 11일 (당신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8월 15일 (하느님의 생명을 형성하는 행위들. 하느님의 생명은 영혼 안에서 증가하면서 아름다움과 능력과 무한한 지혜의 바다들을 펼치신다)

..... 36쪽

제28권: 1930년 3월 24일 (순수한 영이시며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신 하느님. 이 빛이 인간의 창조 속에 반영되었다) **제36권:** 1938년 4월 12일 (주어지는 하느님의 속성들) **제32권:** 1933년 9월 2일 (하느님의 속성들을 한도에 이르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영혼)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 안에서의 진정한 변모와 완성)

..... 37쪽

탈출기: 33,19 (모세에게 당신의 두 가지 속성을 나타내 보이

신 하느님) **제36권:** 1938년 11월 20일 (영혼들의 것이기도 한 하느님의 속성들과 영광)

..... 38쪽

제4권: 1900년 11월 8일 (영혼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박아 주는 순명) **제2권:** 1899년 8월 17일 (인간의 모든 악덕을 죽이는 ‘귀부인 순명’) **제12권:** 1917년 8월 14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려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해야 한다)

..... 39쪽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느지를 쉽사리 알 수 있다) **제4권:** 1900년 11월 8일 (영혼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박아 주는 순명) **제2권:** 1899년 8월 17일 (인간의 모든 악덕을 죽이는 ‘귀부인 순명’) **제12권:** 1917년 8월 14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려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해야 한다) **제4권:** 1900년 10월 15일 (‘귀부인 순명’의 요구) **제4권:** 1900년 10월 22일 (순명은 인간적인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 40쪽

제36권: 1938년 4월 12일 (어디서나 창조주를 볼 수 있는 빛의 눈) **제33권:** 1935년 11월 24일 (하느님 뜻이 다스리는 곳

의 베일이 걷히면 어디서든 하느님이 보인다) **제32권**: 1933년 3월 12일 (개개의 사람 안에 당신 자신을 넣으신 하느님)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에는 당신 자신을 숨기시지 않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숨기시는 하느님)

..... **41쪽**

요한복음: 19장 10~11절 (인용된 부분) **제29권**: 1931년 2월 8일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영혼에 손댈 수 없다) **제33권**: 1935년 5월 14일 (영혼을 해칠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없다.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42쪽**

제28권: 1930년 11월 30일 (하느님의 뜻은 모든 것이지만 하나이고, 만물의 일차적 힘이다) **제32권**: 1933년 3월 26일 (억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뜻) **제33권**: 1934년 5월 6일 (창조된 만물 안의 생명) **제33권**: 1934년 5월 12일 (만물의 원초적인 힘. 오직 인간의 의지만이 강요를 받지 않는다) **제33권**: 1935년 6월 17일 (인간적인 뜻: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주어진 뜻) **제33권**: 1935년 9월 28일 (영혼들 안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 **제33권**: 1935년 11월 24일 (하느님 뜻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가리는 막이 걷히고, 도처에 하느님이 보인다) **제32권**: 1933년 3월 12

일 (피조물마다 그 안에 당신 자신을 넣으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7월 6일 (창조와 보존 활동으로 피조물을 계속 도우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7월 11일 (만물의 원초적 행위인 하느님 뜻은 이 뜻 안에 있는 영혼에게서 활동하신다) **제36권**: 1938년 7월 24일 (사랑은 하느님 뜻 안의 영혼 안에서 활동적인 창조물을 만들어 낸다) **제36권**: 1938년 8월 6일 (바람과 태양과 하늘 따위 모든 것 속에서 의지들의 분리를 느끼시는 하느님) **제32권**: 1933년 10월 15일 (효력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으로서 소유하는 하느님 뜻) **제32권**: 1933년 10월 15일 (하느님 뜻의 생명이 이룩하는 낙원)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자신의 내면에서 하늘을 움직이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영혼) **제28권**: 1930년 7월 16일 (만물의 생명인 하느님의 뜻) **제4권**: 1901년 7월 16일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곳이 남아 있는 영혼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제36권**: 1938년 8월 21일 (하느님의 지체로서 하느님과 결합된 인간. 인간이라는 집 안에 거처하시는 하느님) **제3권**: 1900년 3월 11일 (연옥 영혼들에게는 오직 하느님의 뜻만이 그들의 뜻이다)

..... **43쪽**

제32권: 1933년 6월 29일 (만물 안에서 당신 삶을 거듭하시는 하느님) **제33권**: 1935년 3월 19일 (영적인 영역에는 공간 문제가 없다) **제33권**: 1934년 8월 5일 (영혼 안에 있는 만물과 만물 안에 있는 영혼) **제32권**: 1933년 10월 15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의 낙원에서 하느님의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제33권**: 1934년 9월 24일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영혼) **제36권**: 1938년 7월 18일 (하느님과 함께 어디든지 있는 영혼) **제36권**: 1938년 7월 30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그 누구와도 갈라질 수 없다) **제36권**: 1938년 8월 6일 (영혼이 하느님과 함께 만물 안에 있는 것은 그분께서 어떤 분리도 바라시지 않기 때문이다) **제34권**: 1936년 4월 21일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 있지만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다)

..... **44쪽**

성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 (최민순 譯, 바오로딸 刊, 2013) 30쪽 (인용된 부분) **제29권**: 1930년 3월 5일 (모든 영혼 안에 반영되는 하느님의 행위들) **제29권**: 1930년 11월 24일 (여러 효과와 함께 좋은 것들을 주러 오는 <신적> 행위. 열려 있지 않은 영혼에는 그 좋은 것들이 징별로 여겨진다) **제36권**: 1938년 4월 25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모든 영혼이 하느님께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게 한다) **제36권**: 1938년 4월 15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든 영혼이 하게 한다. 모든 영혼은 하느님 뜻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자기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느낀다) **제36권**: 1938년 4월 12일 (만물로 하여금 하느님께 ‘사랑합니다.’ 하게 하는 영혼) **제32권**: 1933년 6월 29일 (만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느님) **제33권**: 1934년 5월 20일 (모든 것 안에 느껴지는 행위) **제33권**: 1934년 10월 7일 (모든 지성의 생각이 되는 영혼 ……) **제36권**: 1938년 7월 18일 (만물 안에 ‘사랑합니다.’를 박아 넣는 영혼) **제36권**: 1938년 7월 6일 (사랑과 영광의 반향. 만물이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의 진보를 느낀다) **제36권**: 1938년 7월 30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자기가 하는 <하느님 뜻의> 행위에 의해 모든 이를 찾아간다) **제36권**: 1938년 8월 6일 (그 행위의 빛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도 빛이라는 선은 받지 않을 수 없다) **제36권**: 1938년 10월 30일 (창조된 만물 안에서 영혼의 행위를 느끼시는 하느님) **제4권**: 1901년 7월 16일 (영혼 안의 빈곳을 사랑으로 다 채우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 **45쪽**

제28권: 1930년 4월 23일 (우리는 하느님의 거처로 예정되어 있었다) **제32권**: 1933년 4월 29일 (하느님의 낙이 될 지상 천국) **제32권**: 1933년 9월 17일 (우리 모두 안에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지속적인 작업) **제33권**: 1935년 5월 31일 (하느님의 거처인 인간) **제33권**: 1935년 11월 24일 (대망의 ‘나라’ 안에 계신 숭고한 임금님) **제36권**: 1938년 7월 24일 (나머지 모든 조물이 누리는 부수적 영광)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의 낙원에는 하느님께 부족한 것이 도무

지 없다)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지상의 나라 대<對> 혁명의 나라) **제29권**: 1931년 10월 26일 ('피앗의 나라'의 천상인들) **제36권**: 1938년 10월 10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하느님의 활동 현장이다)

..... **46쪽**

제19권: 1926년 8월 27일 (인용된 부분) **제32권**: 1933년 9월 2일 (더 작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목할 일이다) **제11권**: 1914년 5월 18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제28권**: 1930년 7월 9일 (예수님과 영혼 사이에 일어난 일에 집중해야 한다) **제28권**: 1930년 6월 2일 (평화요 안전인 하느님 뜻) **제36권**: 1938년 10월 26일 (근심 걱정은 심신의 쇠약을 초래할 수 있다) **제34권**: 1937년 3월 22일 (평화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성)

..... **47쪽**

성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8절 참조 (인용된 부분) **제12권**: 1919년 9월 3일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보속하는 영혼) **제12권**: 1920년 6월 10일 (천한 것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매달려 사는 영혼) **제12권**: 1921년 4월 26일 (땅을 보지 마라) **제28권**: 1930년 7월 9일 (영혼은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48쪽**

제12권: 1920년 6월 10일 (인용된 부분) **제36권**: 1938년 4월 12일 (선하고 거룩하며 하느님께 속한 것들은 향기를 풍긴다) **제12권**: 1919년 9월 3일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보속하는 영혼) **제12권**: 1921년 4월 26일 (땅을 보지 마라)

..... **49쪽**

제28권: 1930년 3월 9일 (인용된 부분) **제36권**: 1938년 4월 12일 (인용된 부분) **제28권**: 1930년 3월 9일 (하느님 생명의 씨앗처럼 자라는 지식) **제32권**: 1932년 2월 6일 (지식에 근거한 행위의 가치) **제32권**: 1933년 5월 14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 **제32권**: 1933년 5월 28일 (각 지식마다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다) **제33권**: 1934년 5월 26일 (마땅히 알려져야 하는 지식) **제33권**: 1934년 7월 24일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모든 진리를 알려야 한다) **제36권**: 1938년 7월 6일 (사람에게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 주는 지식) **제36권**: 1938년 11월 6일 (영혼으로 하여금 하느님께 올라가게 하는 진리들) **제28권**: 1930년 2월 26일 (피조물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리시는 삼위일체 하느님) **제36권**: 1938년 8월 12일 (진리의 적용으로 인간의 지성을 정화하시는 하느님. 그리하여 피조물을 진리로 변화시키신다) **제26권**: 1929년 5월 16일 ('사랑의 전쟁'의 병사들인 지식) **제30권**: 1932년 2월 28일 (지식이 많을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행위들)

50쪽

제3권: 1900년 5월 21일 (인용된 부분) **제32권:** 1933년 6월 25일 (새로운 센터에 자리하신 하느님) **제32권:** 1933년 6월 29일 (모든 것 속에 반복되는 하느님의 생명) **제32권:** 1933년 8월 13일 (영혼은 되어 가야 할 것의, 또는 영혼 안에 끌어당겨야 할 것의 희미한 모상이다) **제36권:** 1938년 7월 11일 (모든 것을 하느님과 나누어 가지는 영혼) **제36권:** 1938년 11월 20일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 **제36권:** 1938년 8월 21일 (영혼 안의 당신 집에 계신 하느님)

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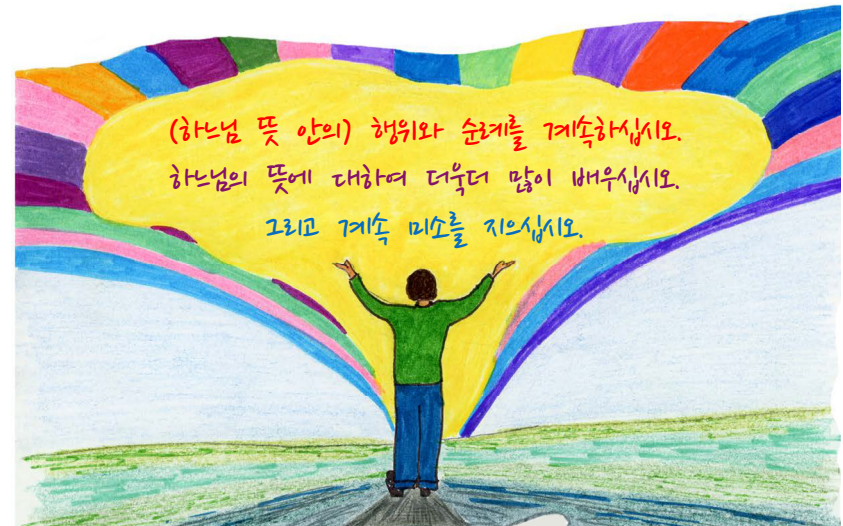
제36권: 1938년 4월 12일 (인용된 부분) 『하느님 뜻의 나라의 동정 마리아』: 제18일 (인간을 위해 전구하시는 마리아) **제36권:** 1938년 4월 12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을 협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느님) **제28권:** 1930년 2월 26일 (초 세기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열망해야 한다.) **제28권:** 1930년 3월 24일 (선물을 확실히 받게 하는 확고한 간청) **제33권:** 1935년 7월 14일 (마리아와 일치하여 ‘나라’를 간청해야 한다) **제36권:** 1938년 8월 15일 (당신 뜻 안에 있는 영혼에게 저항할 수 없어, 그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10월 10일 (그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52쪽

「놀라운 은총」(Amazing Grace) 제6절: (성공회 사제) 존 뉴턴의 『성가 컬렉션』(1790)에 실린 노래

53쪽

제32권: 1933년 8월 13일 (네 가지 표징) **제35권:** 1937년 9월 26일 (네 가지 선물) **제29권:** 1931년 10월 8일 (신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만이 흠 없고 정연하며 완전한 행위로 드높여진다) **제36권:** 1938년 4월 25일 (하느님의 뜻이 영혼 안에서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표징은 점점 더 커지는 사랑과 그 불변성이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활동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비는 간청기도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뜻이시여, 끊임없이,

+ 저희 정신 안에서 생각하소서.

+ 저희 피 속에서 흐르소서.

+ 저희 눈 안에서 보소서.

+ 저희 귀 안에서 들으소서.

+ 저희 음성 안에서 말씀하소서.

+ 저희 숨 안에서 숨 쉬소서.

+ 저희 심장 안에서 고동치소서.

+ 저희 활동 안에서 활동하소서.

+ 저희 고통 안에서 괴로워하소서.

+ 저희 영혼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결합되어 있사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바쳐진
주님 뜻의 살아 있는 십자가상이 되게 하소서.

+ 저희 안에서 기도하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저희의 기도로 당신께 바치시어,
모든 사람이기도한 것처럼 받아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소서.

+ 아멘.





하느님의 뜻에 영구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봉헌기도

오, 흠숭하올 하느님의 뜻이시여,
제가 여기 당신 빛의 무한함 앞에 있사오니,
당신의 영원한 선하심으로 문을 열어 주시어
저로 하여금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신
당신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 안에서 온전히 제 생명을 기르게 해 주소서.

그러므로 오, 흠숭하올 뜻이시여,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저는
당신 빛 앞에 꿇어 엎드려,
지고하신 당신 '피앗'(Fiat)의 자녀들의
작은 무리 안에 들어가나이다.

또한 저의 무가치함 속에 엎드려
당신 빛을 청하며 간구하오니,
이 빛으로 저를 감싸 주시어,
거룩한 뜻이신 당신께 속하지 않은 것은
온전히 사라지게 해 주소서.

그러면 당신께서 저의 생명, 제 지성의 중심,
제 마음과 온 존재의 기쁨이 되시겠나이다.
저는 제 인간적인 뜻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원하지 않사오니 이를 쫓아내고,
평화와 행복과 사랑의
새 에덴동산을 이루겠나이다.

그리하면 저는 언제나 행복하고,
특별한 힘을 가지며,
만물을 성화시켜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함을 지니게 되겠나이다.

여기 꿇어 엎드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며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오로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살게 하시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제 안에 창조의 첫 명령을 다시 내려 주소서.

지극히 위대한 선의 중심이신 예수님,
당신의 불꽃을 제게 주시어,
제 안에 하느님 뜻의 생명이 자라도록
저를 태우고 완성시키며 먹여 살리게 해 주소서.

거룩한 '피앗'의 여왕이신 천상 어머니,
저의 손을 잡으시어
하느님 뜻의 빛 안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의 인도자시며 지극히 자상하신 어머니로서
저를 가르치셔서
제가 하느님 뜻의 질서와
그 경계 안에 존속하게 하소서.

천상 어머니, 제 온 존재를
어머니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봉헌하오니,

하느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을 주소서.
제가 유심히 귀 기울이겠나이다.

또한 어머니의 망토로 저를 감싸 주소서.
그러면 지옥의 뱀이 감히
이 거룩한 낙원 속으로 파고들지 못 하리니,
저를 유혹하여 제 뜻의 미궁 속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이 없겠나이다.

성 요셉, 저를 보호하시고
제 마음을 지켜 주소서.
제 뜻의 열쇠를 당신 손에 맡기오니,
제 마음을 엄중히 지키시며
다시는 이를 돌려주지 마시어,
제가 하느님의 뜻을 떠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수호천사여, 저를 보호하시며 지켜 주소서.
모든 일 속에서 저를 도와주시어,
제 낙원이 번창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 뜻의 나라로
끌어당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모든 천상 주민들이여,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어,
제가 언제나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루이사 피카레타의 저술에 의거하여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풀어 쓴
하느님의 뜻 영성 입문서 (청소년용 속편)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 안의 집에 돌아온 한 방울의 물 이야기

발행일 | 2022년 4월 23일

펴낸곳 | 하느님의 뜻 가족 공동체

취급처 | 불모임 교재 연구실

주소 | 서울 중구 명동길 74(명동2가) 가톨릭회관 315호

Tel | 02)2272-5336

Fax | 02)2275-4336

E-mail | bulmoim@catholic.or.kr